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 기억으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집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현재 피해를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_책을 펴내며에서

#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해 당신 곁에 위드유

당신 곁에 위로,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위드유합니다.



안  
희  
롱  
없는  
일  
터  
를  
만  
들  
기  
위  
드  
유  
공  
모  
전  
에  
세  
이  
사  
례  
집

기획



기획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나는  
일,하고 싶을**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해 당신 곁에 위드유

**뿐이었는데**

I·SEÒ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이드유

이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 시민이 성희롱,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사)여성사회교육원이 운영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드유

#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해 당신 곁에 위드유

초판인쇄 2020년 12월 30일

2쇄 인쇄 2021년 04월 09일

기획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펴낸이 김경태

부디렉터 김도경

디자이너 정소이

경향 분석 김도경

워드 클라우드 데이터 추출 김경태

펴낸곳 (주)인포디렉터스 브랜드 **책틈**

출판등록 2018년 2월 21일 제2018-000050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5층 5호

전화 070. 8813. 5761 전자우편 sfumato\_f@naver.com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책틈**은 책으로 삶의 틈을 채워가는 책을 만듭니다.

ISBN 979-11-90648-50-9(03800)

이 책 『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

**가나초콜렛체**, KoPub체를 사용했습니다.

이 책은 재생원료가 포함된 용지를 사용하였고, 표지에 코팅처리를 하지 않아

잉크가 번지는 현상은 친환경 책자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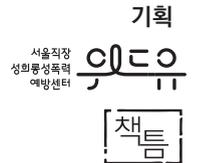
- ☐ 실명과 필명은 표기, 익명은 표기하지 않음.
- ☐ 특정 상호, 지명, 인명 등은 ○○으로 표기하거나 각색.
- ☐ 불특정인을 지칭하는 A씨 등의 표기는 원문대로 표기.
- ☐ 보편적인 줄임말은 원문대로 표기. 나머지 줄임말은 풀어 표기.
- ☐ 코로나 관련 표현은 ‘코로나 19’로, 미투 운동 표현은 ‘#Metoo’로 통일.
- ☐ 공모전의 취지를 감안해 원문 교정교열.
- ☐ 사투리 등 입말 표현은 원문을 가능한 살림.
- ☐ 외래어는 글쓴이의 의도와 독자의 이해도를 돕는 표현은 그대로 표기.
- ☐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작업은 원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작업 후 생성.

# 나는 일,하고 싶을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해 당신 곁에 위드유

# 뿐이었는데

당신 곁에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위드유합니다.



## 책을 펴내며

당신 곁에 위로를, 용기를, 지혜를 **위드유** 합니다.

몇 년간 이어져 온 ‘미투(#Metoo)’ 운동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2020년 6월 8일 개소했습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미투(#Metoo)’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WithU 의미를 담아 ‘위드유’라는 별칭을 사용합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개관과 동시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2, 13조) 여전히 성희롱을 사소

하게 여기는 조직문화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써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성희롱은 물론 대응했던 모범 사례,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한 제안 등을 모집했습니다.

성희롱을 사소화·일상화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341편(슬로건 285편, 에세이 56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전 세대가 응모한 가운데 ‘성희롱 없는 일터와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에세이 본선 진출작 36편 중 17편(47%)이 사회 초년생 시기의 성희롱 피해를 다루고 있어 위계에 의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에세이 사례를 보면 정규직, 사무직 군 외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여러 일터 공간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응모자가 한국의 조직에서 겪은 외모 비하, 성적 대상화 등의 피해 경험을 진술하고 담대하게 풀어낸 작품도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센터는 내·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최종 심사를 거쳐 슬로건 5명, 에세이 5명 등 총 10명을 당선자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이나 맞서 싸웠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 공모전이 그 자리가 되어준 것 같다. 성희롱 피해 생존자의 투쟁을 의미 있게 남기고 긍정하며,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사회적 존중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전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 최태섭 문화평론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글들이다. 우리 사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 기억으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드유** 센터는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에세이 본선 진출 선정 작품 중 30편을 단행본으로 제작해 공모전 취지를 지속해서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 에세이 사례집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현재 피해를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세이 사례집이 나올 수 있도록 단행본 발간에 동의해주신 에세이 응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에세이 저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엮어 주신 김도경 선생님과 책툼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드유** 센터에서 처음 실시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단행본으로 발간하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센터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터장 박현이

# 나는 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책을 펴내며** 당신 곁에 위로, 용기, 지혜를 **와드루**합니다.

## 공모전 선정 작품 10편

**들어가며** 개인적 기억에서 사회적 기록으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경향 분석 요약

### # 1 내가 쓸 수밖엔 없는 이유

- 030 침묵, 비겁했던 나의 선택
- 038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 044 지금 범죄 예고하시는 건가요?
- 050 누가 그녀의 손가락을 책임지나
- 054 시대착오적
- 060 그땐 그랬지
- 066 열아홉 살의 나에게

### # 2 나는 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 074 3분기 여성 전략 회의
- 080 연대라는 구원
- 084 직장 내 성희롱, 웃으며 대처하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 088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 092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 100 어딘가에 있을 A들을 위한 다짐
- 106 내가 비록 힘없는 신입사원일지라도
- 112 사각지대에 놓인 사라질 사람들

### # 3

#### 공포와 불안에서 분노와 경고로

- 120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 126 성희롱은 썩은 상처다
- 132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불편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으로
- 138 할 말은 해야겠어!
- 142 나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 148 싸움꾼
- 154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 # 4

####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점 잇기

- 162 모기 효과 : 모기가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
- 168 나를 버리지 않고 30년 일할 수 있는 곳
- 174 아주 평범한 원칙
- 182 후배에게 못다 전한 이야기
- 188 후배의 눈물
- 194 '혼자'가 아닌 '우리'일 때
- 198 현명하게 칭찬하기
- 204 우리는 성별 외에도 많은 것이 다르다



# 공모전 최종 선정 작품 10편

# 에세이

## 서울워드유상

§ 성희롱 제로 일터로 성평등 서로 동료로\_이유진

## 워드유상

§ 용기 있는 성희롱 신고, 포기 없는 성평등 직장\_윤다은

§ 잠시만요, 저는 지금 함께 웃기 불편합니다\_장혜연

§ 이제야 불편하십니까? 그동안 불쾌했습니다\_송미선

§ 내가 낸 용기의 목소리가 우리 일터를 바꿉니다\_박슬기

## 서울워드유상

§ 모기 효과 : 모기가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_김윤경

## 워드유상

§ 할 말은 해야겠어!\_홍지승

§ 3분기 여성 전략 회의\_익명

§ 직장 내 성희롱 일삼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통쾌한 이야기\_Y.S  
(\*출간물에서 제목 변경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 침묵, 비겁했던 나의 선택\_서진

# 슬로건



016

017

## 들어가며

개인적 기억에서 사회적 기록으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경향 분석 요약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록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개인적 기억을 마주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기록으로 전환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 소송 등 투쟁 과정에서 목소리 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과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더욱 고립되곤 한다. 이번 공모전이 물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대상이자 공간의 역할을 해주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응모자의 마지막 문장이 잊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지만, 사건의 기억을 소환하여 개인적 기록이자 공공의 기록으로 남기는 사례집 발간은 매우 유의미하다. 삶을 흔들고 피폐하게 한 상처조차도 엄중한 사회적 자원이 되었으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접 잇기’의 연결선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공모전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응모한 시민 339명

모두이다. 자신의 서사를 기꺼이 내어준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재정의·재구성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모두의 일터를 만드는 데 몫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경향 분석의 핵심 메시지를 전한다.

### 불안과 침묵에서 용기와 경고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은 성희롱을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소비하며 사소화·일상화하는 인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공모전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공감대를 확산하여 시민 인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모전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슬로건과 에세이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총 응모자는 339명이었고, 공모전 진행 결과 슬로건 285편과 에세이 56편으로 총 341편이 응모돼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방대한 자료를 되풀이해 읽고 분석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본선 진출 작품은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슬로건 5명, 에세이 5명 등 총 10명을 당선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 작품들은 대중 캠페인 콘텐츠로 굿즈, 웹툰, 지하철 내부 광고, 영상, 단행본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콘텐츠로 활용된다.

경향 분석은 공모전 전체 응모작 341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그중 본선에 진출한 슬로건 44편과 에세이 36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중심주제 분석을 했다. 응모자들은 일터에서 경험한 직·간접적인 다양한 성희롱 사례를 소환했다.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짧게는 1년 미만의 피해 사례가 모였다. 응모작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 슬로건과 에세이 장르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용기와 경고’라고 말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미까지 포함한다. 즉, 응모자들은 공모전을 통해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일대일 관계를 넘어 경직된 시대 인식, 조직문화 내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상황에 대해 경고하는 태도 전환을 보여주었다. 공모전 총 응모자 중 2~30대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 비중이 68.3%에 달해 압도적이었으며, 이들 세대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주축이었다. 2~30대, 이들은 성희롱 없는 일터에 대해 ‘용기와 경고’, ‘개입과 연대’, ‘조직문화 개선’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보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회초년생과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직장인이 두텁게 분포한 세대 특성이자 할 수 있는 미닝아웃(Meaning Out) 현상처럼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의미투쟁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매우 드물게 10대에서 80대까지 이르는 전 세대가 응모했으며, ‘성희롱 없는 일터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본 경향 분석은 공모전의 특성상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일터와 고용 관계의 근로자들이 성희롱 없는 직장을 꿈꿨다는 점, 조직 내·외부의 공론화 과정, 사건 이후 사회적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등 진솔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개인적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서사를 당사자의 언어로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자료임이 분명하다. 응모 자격은 연령과 성별, 내·외국인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서울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이였다. 실제로 미성년 10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이르는 전 세대의 응모자들이 보여준 유의미한 인식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슬로건, 함축적이고 강력한 외침

슬로건 본선 진출작 44편을 활용해 만든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에서 가장 빈출도가 높은 단어는 주제어인 ‘성희롱’이었고, 밀접 연관어인 ‘성차별’과 ‘성평등’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두드러진 단어는 ‘농담’ ‘불쾌’ ‘불편’ ‘일터’ ‘용기’ ‘업무’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농담’과 ‘칭찬’이라는 가벼운 말로 변명하는 행위자에 대해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어를 직관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슬로건 본선 진출작의 텍스트를 분석하며 코드화하고 유형 분류해 ‘용기와 경고’, ‘개입과 연대’, ‘사회적 거리와 존중’, ‘성평등 조직문화’로 4개의 중심 주제를 끌어냈다. 중심 주제 비중 순으로 ‘용기와 경고’가 22편(50%), ‘성평등 조직문화’가 14편(32%), ‘개입과 연대’는

6편(14%), ‘사회적 거리와 존중’이 2편(4%)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2~30대 세대의 공모전 응모 비중이 높아지며 성평등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 피해자 또는 동료로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경향성을 보였다. 슬로건 분야 전체 응모자의 50%가 넘는 2~30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고르게 ‘용기와 경고’를 주제 중심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슬로건이 일회용이 아니듯,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개인의 피해를 간과하거나 묵인하는 조직문화는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평등과 갑질, 사회적 약자에의 위계 등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바뀌는 데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물론 동료의 ‘용기와 경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성희롱 예방에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형성되어 나타났다고 본다. 즉,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옳은 방식의 사과와 응당한 처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이 마땅하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선정 작품 중 ‘내가 낸 용기의 목소리가 우리 일터를 바꿉니다’에서 ‘용기’라는 단어가 ‘바꿉니다’라는 단어와 상관관계를 맺으며 명료하게 의미전달을 한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 에세이, 개인의 서사로 사회를 투영하는

에세이 본선 진출작 36편의 텍스트를 분석하며 코드화하고 유형을 분류해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공포와 불안에서 분노와 경고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점 잇기’로 최종 4개의 중심 주제를 도출했다. 첫째,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응모자들은 공모전을 통해 일인칭 시점과 삼인칭 시점, 기타 시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던 경험적 기억과 생각을 드러냈다. 둘째, ‘나는 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에서는 사건 당시 글쓴이의 연령대를 분석했다. 글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연령대로 사회초년생이 4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조직 내 위계 구조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셋째, ‘공포와 불안에서 분노와 경고로’에서는 코드화한 유형을 세부 분류한 결과 1) 조치와 징계, 2) 역공격과 2차 피해, 3) 개입과 연대의 세부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넷째,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점 잇기’에서는 앞으로의 나와 또 다른 나,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응모자들의 태도가 나타났다. 에세이 분야에는 정규직, 파견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일터에서 겪은 경험 중 성희롱 피해 기억의 조각들이 모였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캠페인’에 다양한 고용 형태와 식당, 요양원 등 일터 공간에 대한 관심과 당부의 목소리를 낸 응모작 몇 편이 눈에 띄었다. 이는 공모전을 기획하고 진행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역할이 더욱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개입과 컨설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응모자가 한국의 조

직에서 일하며 겪은 외모 비하, 성적 대상화, 공론화 과정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풀어낸 작품도 매우 귀한 자료이다. 내용의 진정성과 귀함은 물론 글 완성도가 매우 높아 최종 심사 시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깊었다. 심사과정에서 선정 작품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향 분석 작업과 사례집을 출간·배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전자책(PDF 형)과 동시에 판매품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으며, 전자책은 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그 외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리디북스 등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무료로 구매해 읽을 수 있다.

### 모두를 위한 목소리

사적이고 내밀한 피해 경험을 직면한 개인적 글쓰기가 모여,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꿈꾸는 사회적 글쓰기의 결실을 맺었다. 소중한 글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기록물로서 예방 교육 현장에서 알차게 활용될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가벼운 농담’이 ‘누군가의 불쾌한 고통’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왜곡되고 은폐되며 그리하여 어떻게 불합리함이 만연해졌는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2차 피해와 조직적 외면으로 고통에 허우적거리다 생존의 일터를 떠나야 했음을. 이제는 행위자를 묵인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이

는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이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조직문화이다. 용기를 내 꺼내놓은 사적 서사가 모인 이번 공모전의 슬로건과 에세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집단적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경향 분석을 하고, 에세이 사례집으로 엮는 내내 나 역시 함께 아팠고, 함께 분투했다. 수많은 이야기 중 낫선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학교에서, 광장에서, 일터에서 순간순간 겪으며 몸서리치며 싸워내야 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일어나 엄중한 목소리로 기록됐다. 모두가 또 다른 나이며, 이 작업 또한 나와 또 다른 나를 위한 묵직한 연대의 작업이었다.

2020년 12월 30일  
아프고도 귀한 이야기의 모서리를  
다듬고 엮으며, 당신 곁에 위드유

북디렉터 김도경



- ▣ 침묵, 비겁했던 나의 선택
- ▣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 ▣ 지금 뽀뽀 예고하시는 건가요?
- ▣ 누가 그녀의 손가락을 책임지나
- ▣ 시대착오적
- ▣ 그땐 그랬지
- ▣ 열아홉 살의 나에게

# #1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정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인사로 새로운 부서장이 왔습니다. 대부분 여자 상사인 지역에서 몇 없는 남자 상사였고 부서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환영회였던 첫 회식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브샷, 술 먹이기 게임, 술잔 돌리기가 계속되었고, 모든 부서원이 여성임에도 회식 중에 면담을 한다고 부서장의 옆자리에 직원들을 바꿔 앉혔습니다.

그때는 무뎠던 것일까요? 다른 직장에서도 일어날 법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리화하며 적당히 피하고, 넘기며 회식 때마다 서로 눈치 게임 하듯 아슬아슬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부서장은 집 방향이 같은 나에게 회식을 마치고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대화를 하며 그는 치마를 입고 있었던 내 허벅지를 어느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얼마지 않아 내가 먼저 도착을 했고 서둘러 내리며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술이 과해서 그랬을 거야...”, “너무 예민하지 말자.”, “팔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설마...”라며 오히려 나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더욱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타이트한 직원에게는 살찐 것 아니냐며 허리를 만지거나, 습관적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어느 순간 불쾌함을 표현하는 직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능청스럽게 넘기거나 오히려 화를 냈고 부서장의 사소한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교묘히 괴롭혔습니다. 나는 불이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

서 침묵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외향적인 편입니다. 언제나 의견을 잘 표현했고 각종 취미활동과 사회 활동에 늘 앞장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견해차를 보일 땐 설득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야 말았고, 친구들에게는 늘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던 내게 처음 다가온 그 일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나는 위축되었고, 무언가 모를 두려움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서장은 그냥 적당히 피하기만 하고 적대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나에게 더욱더 심하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오빠하고 한잔할까?”, “유니폼 잘 어울린다. ㅇㅇ는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오는 라인이 아주 좋아.” 퇴근한 후에도 문자를 보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며 전화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야한 소설에 가까운 말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대충 받아넘기고, 적당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까요? 급기야 “그만 텅기고 한번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업무 특성상 지점 대표 및 타 부서장들과도 소통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왜 안 났을까요? 가해자는 직속 상관인 탓에 나의 휴무나 휴가 그리고 인사고과에 첫 결재자였습니다. ‘정기 인사 때 까지만 참자.’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성과에 오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과연 사소한 일이었을까요? 왜 피해자인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동기들과 술이라도 마실라치면 혹시 다 털어놓을까 두려워 저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럴수록 가해자는 더욱 은밀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몇 달, 어느 날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긴 문자 몇 통을 읽고 보니 부서장의 아내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문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문자 속에서 나는 남편과 바람난 여자였고 인간쓰레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공범이나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극심한 몸살을 앓았고 이를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하다 조금씩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에 피폐해진 내 모습과 생기를 잃은 나의 얼굴... “내가 왜 도망친 거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자가 온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악을 쓰며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일을 가해자의 아내라는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상항에 대해 가해자와 그의 아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통화를 하던 순간 그동안의 감정을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주기적으로 통신사에 남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아내가 전화와 문자 내역의 빈도가 높던 번호를 보고 수상했는데, 막상 남편 휴대폰을 보면 지워져 있어 의심했고 여러 차례 내게 전화를 해 여자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추궁했지만 미심쩍어 문자를 보낸 것이라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 부서장은 나를 면담실로 불러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참 많이 변명하고 울먹이고 아내가 임신 중이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을 난 두려워했을까? 나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6개월가량 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내가 보인 침묵의 행동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나를 보기 불편했던 상사의 입김이 있음을 알았지만, 오히려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사실을 알리기엔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가해자여야 하는데 피해자인 나에게 주어진 불이익을 나는 침묵의 대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직장에서 5년 차가 될 무렵 가해자와 난 다시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누군가에게 더욱 교묘하고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며 성희롱을 일삼고 있

음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슬럼프가 온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냥 지긋지긋하고, 무언가 모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나의 첫사랑 같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며 지금의 직업에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퇴사하고도 6년쯤 지났을까요. 회사 내에서 #Metoo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본사 감사실이 나섰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이 오고 가고, 15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불명예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이 그 시기에만 4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엔 신입 때부터 아꼈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가해자에게 침묵은 명분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간과했습니다.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또한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응어리가 맺혀있고 치욕스러우며, 지금도 트라우마로 머릿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은 우리 사회가 피해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사회로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희롱 피해는 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겪

거나 목격한 동료라면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깨어 나왔으면 합니다. 당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었다. 이런 나를 보던 남직원이, “○○씨, 인터넷 돼?”라고 물었다. 나는, “네. 무제한이라 테더링을 잡아서 쓰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는 곧, “나도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줘, 게임하게.”라고 했다. 사무실에 와서 의자를 한껏 뒤로 젖힌 채 하루 종일 모바일 게임을 하던 그. 월급 축내는 월급 도둑.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어차피 나는 무제한 요금제이고, 내가 개인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말한 상태이니 썩썩하게 안 된다고 돌려달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와 더는 말을 섞기 싫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쓸모없는 그 인간의 불쾌한 요구는 매일매일 사무실을 울렸다. “○○씨, 와이파이 좀 켜줘. ○○씨 위에 올라타게.” 개자식. 쓸모없는 인간. 집에서는 출근한답시고 정성스레 차려준 밥 처먹고, 아이들에게 인사받고 나왔겠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모바일 게임이나 하는 주제에. 지질하게 돈 몇 푼 더 내기 싫어서 남의 인터넷이나 빌려 회사에서 허튼짓이나 하다 여섯 시 땡! 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척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밥을 또 처먹겠지. 한심한 인간.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선배들은 나에게 ‘○○씨 위에 올라타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선배 탓은 절대 아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바랐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콧방귀만 뀌고 말았다. 그다음에도 세 번, 그는 선을 넘었지만 나는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

급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것이다.

“그만하세요.”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불쾌한 그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던 직원들, 모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된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회사 밖, 사회에서도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무시하고, 피하고, 간과하며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란다. 사실, 내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한들 그따위 인간은 속으로 나를 욕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또 누군가의 위에 올라타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할 인간이다. 용기 내어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더라도 바뀔 것은 없다. 면전에서 말도 못 하면서 감사실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아직도 나는 쓸모없는 그 인간의 말 한마디에 가끔 잠을 못 이룬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나는 ‘그만하세요. 선배답게 예의 좀 지켜세요.’라는 말을 할 위인은 못 된다. 그 인간 말종이 선을 세 번만 넘었던 것은 뒤늦게 알고 보니 계장님이 조용히 불려서 한 말씀하신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고 경력이 쌓였다. 오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다행히도 후배가 나에게 찾아왔다. 같은 일을 겪은 직원이 후배 말고도 한 명 더 있다고 했다. 말을 들어보니 인격 비하, 성차별, 직장 내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의 총집합이었다. 나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내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감사실을 찾아갔다. 후배의 입이 되어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왔다. “그 직원 내가 잘 아는데, 아~ 조심 좀 하지, 심하네. 후배 대신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로 좋게 해결해.’가 끝이었다. 후배는 ‘사과를 받았으니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해서 감사실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표했고 그 일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사실 후배는 나를 찾아올 때 이미 사과를 받은 후였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방황한 후배를 위해 어렵게 결정한 것이 내가 감사실을 대신 가는 것이었다. 결과는 이결로 끝이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근무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외국의 정부 기관, 회사에서는 감사기관을 옴부즈맨 격의 외부 인력으로 별도 운영한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일보다, 후배의 일로 마음이 더 아팠고 용기 내어 감사실에 찾아갔음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더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후배의 의사를 감사실로부터 들었던 것에 잠을 이룰 수 없던 날이 더 많았다. 콧방귀를 끼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일들이 이후에도 종종 일어났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그 옛날의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여직원으로서 회사 생활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

니다. 꺾어보니 그렇다. 꺾을수록 더 그렇다. 과연,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 지금 범죄 예고하시는 건가요?



“감독님, 지금 범죄 예고하시는 건가요?”

지금의 나라면, 그 순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7년 전, 첫 직장에 입사한지 겨우 몇 개월도 되지 않았던 그 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말을 했던가. 소위 ‘문화예술계’로 분류되는 사회는 언뜻 느슨한 위계와 자유분방한 분위기일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예술’이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고, 여성성의 대상화가 너무나 만연하기에 오히려 둔감해진 사회. 영화계에서 #Metoo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던 때, 나 역시 수년간 영화 일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크고 작은 상황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가장 생생한 기억은 〇〇에 근무하던 스물네 살, 2013년의 일이다. 해당 지역의 창작자들로부터 시나리오 공모를 받아 우수작에 지원금을 수여하는 사업을 위해 현업에서 활동 중인 감독 몇 명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했을 때, 그들의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별개로 가슴이 뛰었던 것을 기억한다. 동경하던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디고, 드디어 ‘진짜’ 영화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서였다. 영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나설 일이 없던 당시의 나에게 상업 장편영화를 여러 편 연출한 감독을 만난다는 것은 나름의 이벤트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만나기 전 멋대로 ‘진짜’ 영화인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내 기대가 무색하도록, 식순으로 따지자면 ‘착석’ 정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그 이벤트는 엉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심사를 위해 먼 지역까지 기꺼이 와 준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 감독은 직접 챙겨온 술을 꺼내 모두에게 한 잔씩 따라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씨는 술을 못 마시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거의 쓰러져버려요.” 입사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서 맥주 한 스푼(!)에 곱아떨어진 내 주량을 알고 계셨던 ○○님의 배려였다.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거나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해’, 또는 ‘술자리 빼는 여자들과는 일하기 힘들지’라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시절, 어려운 어른이 주시는 술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아니 거절해도 되는 건지를 내심 고민하고 있던 내게는 감사한 한마디였다. 경험상 ‘아예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어딴어’ 라거나 ‘한 모금만 해’ 같은 말이 한두 번쯤은 오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어진 그 감독의 말, 아니 행동은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이고, 쓰러지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옆에 앉은 내 코 밑으로 자기 술잔을 들이밀고 냄새를 맡으라는 듯 손 부채질을 했다. 술 냄새보다 먼저 당혹감이 훅 끼쳐왔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느껴진 즉각적인 감각. 나는 그가 그저 농담했을 뿐이라는 가벼운 손

짓으로 술잔을 다시 거둬갈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맞잡은 채로, 하하 호호, 감독님 농담도 참, 같은 말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걸 들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입사 동기 언니만이 굳은 얼굴로 눈을 마주쳐왔다. 그 한 쌍의 눈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순간을 못 견디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술 냄새에 쓰러지면 뭐가 고마운 걸까, 뭘 하겠다면 거였을까. 물론 그 감독이 나를 기절시키고 뭐가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건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 다만 끔찍한 건, 범죄 예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모두가 우스갯소리로 소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강제추행, 강간 등의 사건 보도에서 ‘클럽이나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상호 합의 후 한 성관계’라는 주장과 술을 많이 마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진 성폭력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여론은 ‘그러게 그 여자도 왜 정신 놓을 정도로 술을 마셔’라는 질타를 빼놓지 않는다. 술 때문에 저항 불능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많은 여자에게 아주 실질적인 공포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이면서도 또다시 수많은 인격 살해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감독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생각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그런 농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 현장의 여성 스태프들, 그때의 나처럼 어리고 주눅 든 업계 초년생들을 향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겠지. 2년 전, #Metoo 고발이 수면 위로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 이 기억을 끄집어냈다. 증거도 없고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끌어내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영화계 동료들과 소통하는 SNS에 공론화하면 어떨까. 몇 가지 반응과 조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사람 선지도 오래됐는데 그런 일로 언급되면 불쌍하지 않냐,”던 남자 선배의 말이지만 결정적으로 내 생각을 접게 한 건 오히려 제작부로 일하는 여자 후배였다. “만약 언니가 강간을 당했으면 백번 응원하겠는데, 이런 거로 하나하나 공론화하면 이래서 여자 스태프들 앞에선 무슨 말을 편하게 못 한다고 괜히 우리 일 하기만 힘들어져요. 나도 그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받아쳐요.”

그런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이 문제지만, 이 세계는 아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쌓아놓은 권위의 구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음으로, 균열을 내리는 사람을 배제해 버리고 자신들끼리 푹푹 멍쳐 더욱더 단단한 성안에서 스스로 군림할 수 있으므로, 행여 그 안에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지나가 버릴 수 있도록. 슬프게도 나는 혼자서 해머를 들고 그 성벽을 박살 낼 수는 없다. 다만 2년 전 발족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나 활동 영역을

늘려가는 여성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져 언젠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이 한 말은 범죄 예고와 같다고 당당히 말하고도 ‘이래서 여자들 앞에선 무슨 말을 못 한다’라거나 ‘분위기 깨는 데 뭐 있다’같은 말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여성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 누가 그녀의 손가락을 책임지나



“싫다고 하잖아요. 그만하시라고요.”

이미 두 차례 흥어 소리를 들은 광주 출신의 나는 당시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일베 하시냐며 쏘아 붙여놓은 상태였다. 덕분에 싸해졌던 분위기가 어찌어찌 수습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몇 년 전 가을, 나는 일이 없어도 앉아있으라는 억지스러운 야근과 주말 출근 강요, 여자 실장의 성희롱적인 발언 등으로 불편함을 잔뜩 끌어안고 퇴사하게 되었다. 이후 혼자 남게 된 동기와 술 한잔을 하기로 했고, 퇴근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다. 두 잔쯤 마셨을까? 당시 직원 여럿을 마주치게 되었다. 본인 팀 회식 중이라며 합석하자고 했다. 뭐 나는 이미 퇴사했으니 편하게 마시고 가야지, 생각하며 의자를 옮겼다. 내 생각대로 가볍기 짝이 없는 대화들이 오가는 술자리가 시작됐다. 웃기도 했고, 무언가에 대해 말하기도 했고, 듣기도 했다. 그러다 난데없이 지역 비하를 시작하는 과장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신없는 와중에 덩치가 매우 큰 남직원이 본인과 친하다며 뜬금없이 다른 팀 여직원을 불러냈다. 그는 잔뜩 취해 우당탕 넘어지고 소주 병을 쳐서 깨뜨리는 등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 친하다는 직원의 어깨를 감싸며 ‘내가 널 좋아해서 그렇다’며 일

방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직원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으며 계속해서 싫은 티를 냈다. 이미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다. 엎드려 있는 그녀를 향한 그의 이상한 구애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주물럭대더니 심지어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갖다 넣기도 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다들 누가 신호라도 준 듯 입을 멈추는 모습 또한 숨 막히게 끔찍했다.

보다 못한 나는 그만하라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취해서 풀려있던 상대의 눈이 갑자기 마치 가 풀린 듯 또렷해지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그럼, 애 책임질 거야?” 거구의 남자가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뱉으며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던 순간은 몇 년이 지났어도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물며 그 여직원은 어땠을까. 순간 너무나도 겁이 나서 이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노려보다가 유아무야 상황이 마무리되어 귀가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부끄러웠다.

그때 내가 겁먹지 않고 한 마디만 더 받아줬다면 내 옆의 사람들이 힘을 실어줬을까? 애초에 나는 무엇에 겁을 먹었을까? 내가 퇴사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그 말조차 못 꺼내지 않았을까? 아니, 내 용기 없음을 탓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 건가? 그녀의

손가락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까? 그날은 정말 서늘한 가을이었다.



않아도 될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 초년생인 내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처럼 커 보여서 힘들었다. 퇴근 후, 단순한 호의로 퇴근길 위험하니까 태워준다고 생각했지만,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나이가 어려서, 여자여서,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말로 가스라이팅(Gas Lighting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한다.)을 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 여자는 예뻐야 된다는 말을 자주 달고 살며, 여자가 타 주는 커피를 아침으로 즐겨 마시며, 시대착오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보수적인 회사였다.

사장님은 업무적인 부분보다 나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고, 90년대식 사고에 멈춘 분이였다. 순진했던 나는 회사는 다 이런 곳이구나 생각하며,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타지에서 근무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내게는 첫 직장이었기에, 업무적으로 자주 부딪쳐야 하는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흐리기 싫었기에, 나 혼자 참으면 되는 부분이기에, 보복의 가능성도 있기에 등 현실적인 이유가 두렵고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든 가해자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와 같은 이유로 사회에 말하지 못한 외침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결국은 몇 달 못 가서 최종적으로 퇴사를 선택하면서 많이 울었다. 나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시

선 집중되는 현실과 문제를 제기해도 변하지 않을 거 같은 인식.

스무 살의 나이는 꽃다워야 하는 나이인데, 꿈과 비전을 품고 시작한 걸음마가 왜 이렇게나 비참하고 힘든 것일까. 그때의 경험을 통해 다음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선을 넘지 않게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초년생 언니들과 갑작스럽게 잡은 약속으로 술자리를 갖게 되는 날이 있었다. 분위기에 취해서 언니 한 명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우리에게 털어놓는데 회사 대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출장을 같이 가야 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음 출장 때 제 주도를 같이 가야 한다며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자기 허리를 살짝 감싸 터치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수상했던 부분이 있지만, 차마 대표이기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나 역시도 첫 직장의 일은 친구, 부모님, 친척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편의 부끄러운 기억이라 생각했기에 입 밖에 내거나 내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언니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을 들으니 과거의 나와 상황이 비슷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과거가 언니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에 기억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언니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언니가 정확히 안 된다고 표현을 해야지, 대표라는 분도 멈출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그만큼 허용되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일을 겪어봤으니까 언니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인권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갑질 행위,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이 사회에 존재하며, 성희롱 없는 일터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첫 번째 직장에서 있었던 잘못된 사실을 잘못되었다고 입밖으로 말하기까지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것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일까? 돌이켜 보면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닌데 말이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더 떳떳한 세상에 살아가고 싶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한 걸음씩 꿈꾼다.

## 그땐 그랬지



“쳐다보는 건 괜찮다고요?”

“네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요? 참으라고요?”

“아니요.”

“이 말이 불편하냐고요? 이 행동이 불편하냐고요?”

“네. 그랬어요.”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눈빛이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무언가 목구멍 안에 잔뜩 틀어막은 듯 막상 그때는 그러지 못했네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다들 그렇게 회사생활이라고 말해서 그냥 참았네요. 당신이 툭 내뱉은 한마디에 전 억하고 무너지는 직장생활이었어요. 매일 밤 회사를 때려치우는 꿈을 꾸었지만... 돈이 뭔지. 망할 놈의 회사라고 하면서 속으로 욕도 참 많이 했네요. 그땐 그랬어요.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당신의 가벼움에 제 가슴은 항상 무겁고 아팠어요. 혹시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야! 똑바로 살아!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그리고, 당신의 가족도 성희룡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런데, 있잖아요. 솔직히 만나도 못 할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별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 그 사람에게 말해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네요.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봐 두렵네요. 사실, 막말하는 상사보다 싫은 건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는 동료들의 무관심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들, 그리고 바른말 하면 오히려 욕먹을 것 같은 직장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싫은 건 이로 인해 느끼는 저의 무기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허탈감이었죠. 그런데, 진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뭘 줄 아세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장 내 잘못된 문화와 분위기가 바뀌고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한 숨기고 싶은 초라한 자화상이었네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라며 그렇게라도 발버둥 치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어린 시절, 어쩔 수 없다며 눈 질끈 감으며 보냈던 침묵의 시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닐 거야 스스로 위로했던 괴로운 나날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나를 성숙한 나이가 돼 보니, 어린 날 고귀한 저의 영혼과 자존감을 몇 푼의 돈과 맞바꾼 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주눅이 들면서 설설 기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삶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나서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엔 상사의 막말과 동료의 무관심과 그로 인해 낮아지는 저의 자존감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지금은 그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히네요.

그래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지요. 지극히 사소한 상처부터 설불리 손대기 어려운 상처, 그리고 의외로 극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까지 참으로 다양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상처는 그냥 낫는 게 아니래요. 몸에 난 상처는 약이라도 바르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인의 상처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곤 하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네 마음속에서 다 지워질 거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쉽진 않네요.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떠오르니까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잡아당기니까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피해자는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전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가해자는 미안해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적인 희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은 많은데, 마음의 상처를 준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그냥 길 가다 재수가 없어서 똥 밟은 것일 수도 있다. 아무렇게나 막 싸질러 놓은 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것이다. 인상을 찌푸리며 “에잇!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하며 불멘소리를 낼 때쯤 코끝을 찌

르는 악취가 올라오며 기분은 더러워진다. 똥의 성질을 자극해서 인지 악취가 점점 심해진다. 안 그래도 밟을 때 그 물컹한 기분이 너무 싫었는데, 지독한 냄새가 더해지니 역겨움이 엄습해온다. 신발에 묻은 똥을 땅바닥에 대고 쪽쪽 문질러서 닦아보고, 모래에 비빈 다음 털어보지만, 여전히 찝찝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똥 밟고 난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 해도 그 진하고 역한 냄새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른다. 똥 밟으면 재수라도 좋다는데... 똥 밟은 신발은 세탁이라도 하면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이 찝찝함과 역겨움은 도대체 영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세제를 써야 지워질 수 있을까?

한발 양보해 생각해보면,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밟은 사람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똥 싼 놈은 뭔가? 똥 자체는 잘못이 없어도, 거기에 똥 싼 놈은 분명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똥 싼 놈보다 모르고 똥 밟은 사람만 몰아붙인다.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칠칠치 못해서 똥이나 밟고 다닌다며 조롱거리로 삼는다. 역설적이게도 똥 싼 놈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주변에선 똥 밟은 사람만 당장 치우라고 다그친다. 성희롱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도 없었고, 정색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 그랬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이제는 기억 저편에 남겨두고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아

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더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기에 이제 그만 해묵은 감정 찌꺼기를 다 풀어내며 놓아주고 싶다. 만약, 지금도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말하고 싶다. “그때는 그냥 참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네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와 단호한 의사 표현이에요. 그래야 지금과 미래의 당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당신은 말로 행동으로 눈으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장난이고 남이 하면 성희롱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장난은 장난이고 성희롱은 성희롱이에요.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존중해줄 수 없나요?”

## 열아홉 살의 나에게

조 이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열아홉 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대표와 전 직원이 5명 정도인 작은 무역회사에서 생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서 정신도 없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대표와의 1:1 면담 시간이었다. 1996년, 당시 성범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지금 기준으로는 이웃에서, 직장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범죄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희롱과 추행이 만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다. 큰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은 나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던 사장의 말은 큰 몸집과 부리부리한 인상, 그리고 그 직위 때문에라도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아직도 그놈의 ‘딸 같아서’라는 말과 함께 내 손과 허벅지를 어루만지면서 떠들어대던 말의 내용은 주로 ‘회사 생활은 만만하게 아니다.’ ‘내가 많이 알려줄 테니까 많이 배워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안 좋은 일은 나한테 상의해라.’ 등 따뜻한 인생 선배에게서나 들을 법한 말들이었다.

같이 근무하던 나와 세 살 차이 나는 디자인 업무를 하던 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나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내가 오기 전에 같은 일을 당하던 사람이 그 언니였다는 걸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왜 그 상황에서 미안해야 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사장이 아닌, 피해자인 그 언니여야 했는지 알 수가 없

다. 추행이 있던 날이면 으레 점심은 걸렸고, 밥을 먹고 들어오는 언니의 손에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아마 지금 이 경험을 듣는 사람들은 내게 물을 것이다.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학교에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무엇보다 왜 가해자에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지 말이다.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당시에는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라는 공식이 성립하던 시기였다. 그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목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스웨터와 골덴이라 불리던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두꺼운 외투까지 걸치고 내내 그 상태로 일하곤 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내게서만 찾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대표의 추행은 계속되고, 점점 수위는 높아져 갔다.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참을성이 없다며 내게 어디든 3년은 버텨봐야 한다고 얘기했고 나는 또 내가 잘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취업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실 문을 열고 말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장은 마치 뜬금없는 개그라도 들은 것처럼 실소를 터트리며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

라고 했다. 가방을 멘 채로 들어가 앉았더니 내게 퇴사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급하게 꾸며낸 이유는 지금의 내가 생각해도 참 어리숙한 대답이었다. “집이 망해서 시골로 이사하게 됐어요.” 사장은 가만히 날 쳐다보더니 또 내 옆에 와서 앉아 내 손을 잡으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마치 성경이나 법전을 읽는 듯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짐 싸서 와. 가끔 주말에 나랑 등산이나 하면서 출퇴근 같이하면 되니까.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게. 대신 월급은 반만 받고. 이렇게 좋은 사람 없어. 네가 딸 같아서 하는 소리야.” 어린 나이였어도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진심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들었다.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게 소리쳤다. “그럼 사장님 딸이 나중에 회사 다니면 그 회사 사장이 온몸을 주물럭거리려도 되나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 회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나의 첫 직장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뒤로도 그 사장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다음 회사, 그다음 회사, 그리고 늦게 진학한 대학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얼굴과 외모만 다른 채로 대리의 모습으로, 과장의 모습으로, 차장, 부장, 교수, 선생님, 동료의 모습으로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때의 나 역시 아직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방법과 정도가 다를 뿐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 성범죄들은 아직도 어디에나 널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하면서 나도 변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나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나만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럴 때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열아홉 살의 수많은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열아홉 살의 나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잘못된 건 단 하나도 없다. 어깨 펴고 큰 목소리로 소리쳐라. 꺼져라, 이 쓰레기야!”라고.

- ▣ 3분기 여성 전략 회의
- ▣ 연대라는 구원
- ▣ 직장 내 성희롱, 웃으며 대처하는 즐거운 회사 생활
- ▣ 그때는 뺏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 ▣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 ▣ 내가 비록 힘없는 신입사원일지라도
- ▣ 사각지대에 놓인 사라질 사람들

## #2

나는  
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 3분기

## 여성 전략 회의



이번 여름은 이례적이었다. 맑게 갠 하늘은 드물었고 속절 없이 내리는 비에 세상은 자주 축축하고 어두웠다. 구태여 날씨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대미문의 사건인 ‘코로나 19’만으로도 우리는 권태롭고 우울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전염병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됐다. 분노할 거리가 필요한 모양인지 회의에서는 자주 높은 언성이 오고 갔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 믿기 싫었지만 정말이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융통성을 발휘하던 기지는 모두 사라지고 규정, 규칙 등 보수적인 업무 체계가 못이 박히고는 빠지지 않았다. “규.정.대.로.해.야.합.니.다.”라는 말은 회사의 표어가 될 만큼 유행했고 직원들은 AI처럼 초인간적으로 변해있었다. 그러나 그 여름 내가 당면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는 사업부서별로 층만 다를 뿐인데 상호 소통에 제약이 많았다. 다행히 다른 층에 동갑내기 ○○여직원이 있어 가끔 그 부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여직원이 내게 점심 약속을 요청했다. 둘이서 따로 점심을 먹는 일은 으레 있던 일이지만 그날의 점심 약속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고 예삿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 ○○남직원한테 스토킹 당해서 감사실에 신고해놓은 상태야.” 나는 한숨 뜨던 육개장 국물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옷을 버렸고 그건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다. 순간 그의 과거 행실이 떠올랐다. 그는 나와도 얽힌 일화가 있지 않던가. 내가 기억하는 ○○남직원은 이

됐다. 고질적으로 선물 공세를 하며, 밥 한번 먹자고 달려들었다. 근무 중에 할 얘기가 있다고 휴게실로 부르거나, 연애 상담을 해 달라며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더니 대뜸 내게 고백을 하던 사람. 소스라치게 놀라 남자친구가 있음을 강경히 말해야만 했다. 이것들이 내가 파편적으로 기억하는 ○○남직원의 본모습이었다. 이제 는 나와 동갑내기 ○○여직원을 스토킹까지 했다고?

○○여직원은 증거 제출을 마친 상태였다.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가공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피해 정황을 속속들이 적었다고 했다. 오랜 스토킹으로 심신이 지친 ○○여직원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까지 겪게 됐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자신이 한 사람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건 아닐지 두렵다고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도 쉽게 고발할 수 없는 현실임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다. 그간 동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나 자신이 미웠다. 함께 식당을 나오며 이 사태를 공론화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후 내가 사내 여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는 ○○남직원의 사생활을 밝히고 이에 응당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이 전략이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 전 직원이 그의 행실을 예의주시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일 거라 생각했다.

“언젠가 제 손을 덥석 잡은 적도 있어요!”, “제가 이사를 했

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는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사 축하한다며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줬어요. 그 당시엔 공손히 거절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사한 걸 어떻게 알고 선물까지 살 생각을 했는지...”, “퇴근할 때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여러 번 거부했는데도 계속 찾아왔어요.” 여직원들의 목소리는 화수분처럼 표출됐다. 나는 이런 정황들을 모두 메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전담 직원을 찾아갔다. ○○남직원의 행동을 낱낱이 고발했다. 여러 여직원이 그의 존재를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악천후보다, 또 코로나 19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 길고 험담한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자면 ○○남직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부서장과의 면담,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했고 ○○여직원을 비롯한 여러 여직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여 상황을 마무리했다. 특히나 ○○여직원은 감사실장님과 길고 긴 상담과 회유 끝에 그 일을 없던 일로 정리했다.

이러한 결과를 믿을 수 없었지만, 눈 뜨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성의 삶에서 빈번하다는 것을 혹독히 깨달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얻은 한 가지 열매는 사내 여성 인권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는 것이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여직원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헛소문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격려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대는 생각보다 단단했

으므로. 벌써 8월이 훌쩍 지나 연말이 되었다. 우리의 모험은 희망도 절망도 없이 끝이 났지만, 이제 더는 ○○남직원 같은 악질 캐릭터는 우리 곁에 등장하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우리의 영토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3분기 전략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부분의 선배는 내가 그에게 여지를 준다고 나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교수님께 말해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모든 상황에서 가해자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밖에 안 됐지만, 현실이었다.

곤란해하는 것도 감당해야 하는 것도 모두 나의 몫이 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얼 어떻게 더'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다행히 동기들에게 털어놓은 뒤부터는 동기들이 그가 내게 말 붙일 틈을 만들지 않도록 함께 있어 줬다. 내게 오는 그의 전화를 동기들이 받거나, 학교 업무로 그가 내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동기들이 나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른 이들은 저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린 필사적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내게 구원 같았다.

취업한 후에도 이런 종류의 상황들은 언제나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졌다. 자신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뱉는 발언들부터 내가 회사에 얘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메시지 같은 것들. 시대가 변했다며 모두 몸을 사린다고는 했지만, 본능에 기인한 진심들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회사에서도 나의 대응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좀 더 단호해졌고,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나의 의견을 평소에 강하게 피력하고, 예민하다는 말을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를 지켜주려는 대표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당시 내가 일했던 업계에서 여성 대표는 우리 대표님이 유일무이했다. 여성으로서, 여성 대표로서 사회에 자리를 잡기까지 대표님이 꺾고 지켜봤을 많은 일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세월 덕분인지, 대표님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데 도가 튼 분이였다. 남자 직원이 내게 애교 좀 부려보라고 하면 그에게 먼저 시범을 보이라고 하시거나, 나이 많은 거래처 담당자가 내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때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며 유쾌하게 웃어 보이셨다.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만나게 될 여성 동료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과 같았다. 서로를 지키고 도와주는 여성 동료들의 존재와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은, 그 문제의 경중을 떠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는 나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로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문제의 원인을 피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은 가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답습될 것이다. 다른 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 결국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연대라는 구원은 결국 모든 여성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직장 내 성희롱,  
웃으며 대처하는  
슬기로운 회사생활

윤 라 경



“솔직히 저는 여직원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충격적이었다. 두 번째로 옮긴 직장에서 이제 겨우 2년 차, 회식에서 들은 말이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20~30대가 많은 그야말로 젊은 회사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모는 안 당할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전에 있었던 여직원보다 오랫동안 다니면서 일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 와중에 ‘여직원’이라고 콧 집어서 표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명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나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많은 20대 여자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어 쉽게 일을 그만둔다는 편견에서 나온 말이 내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어떻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듣기 거북하고 불쾌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난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팀장님.” 입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눈은 분명 안 웃고 있었다.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옮긴 이번 회사는 오래 다니고 싶었다. 그래서 웃어 넘겼다. 들리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내 분노의 용암이. 더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전 직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전에 다녔던 직장은 주로 40~50대 직장인이 많았다. 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숙했다. 그래서 무조건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무슨 말이든

예스맨이었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다.

“oo씨는 키도 크고 늘씬해서 인기가 참 많겠어~”

“나는 oo씨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야~”

“자고로 여자는 말이야~”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그때는 몰랐다. 지금 와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반성하니 이런 사건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놨다. 뭐가 잘못된 지도 모른 채 웃고 넘겼던 나약한 나 자신을 꼬집고 또 꼬집었다. 한창 국내에 #Metoo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직을 하면서 면접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관한 생각을 답변한 적이 있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이런 사회적 운동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 회사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게 생각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유로 마냥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두 번의 이직과 사회생활 경력이 쌓일 대로 쌓인 나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다.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않기.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사 표현과 동시에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절충안을 나름대로 고안해낸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회사에서 ‘시크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나는 그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뿐인데 말이다. 두 번째, 사

적인 대화를 삼가자. 사실 일 외에 대화를 되도록 하지 않을수록 좋다. 목에 핏대 세워가며 열을 내봤자 예민하다, 버릇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 분명하기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회사에서 ‘과묵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나는 그저 예방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을 뿐인데 말이다. 덕분에 지금까지 아주 건강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누군가 직장 내 성희롱을 맞닥뜨린다면 이제는 피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현명한 직장인이 되었으면 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요즘은 #Metoo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내가 처음 들어  
 갔던 극단은 당시만 해도 성희롱을 사소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기  
 저기 깔려있었다. 선배들이 나이 어린 후배들의 이마에 뽀뽀하는  
 것은 나름 점잖은 행동이었고, 연출이 조연출의 손을 잡고 술을  
 마시고, 여러 음담패설과 배우들의 외모 폼평회는 매일 이루어지  
 는 그런 곳이었다. 스물네 살의 나는 대학로는 모두 이런 곳이고  
 내가 참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도 잊지 못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오디션을 보고 다른 극단의 공연을 들어가게 되었다. 연출  
 은 여성 연출가였다. 공연 연습을 시작하고 한 달 쯤 됐나... 연출  
 이 단합을 위해 MT를 함께 가자고 했다. 지하 연습실에서만 연습  
 하다가 함께 친해질 기회도 갖자는 좋은 취지였다.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즐거웠다. 하지만 즐거운 건 나뿐이었다.  
 이미 극단 선배들에게 적응이 되었던 나는 모든 이야기를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처음 공연을 시작하는 다른 언니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남자 선배가 따로 이야기하자고 언니를 데리  
 고 나갔다. 종종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했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 숙소에서 모두 자고 있는데 어디선  
 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서 보니 그 언니였다. 같이 나갔던  
 남자 선배가 그 언니를 무릎에 앉히고, 손깍지를 끼고 심지어 볼  
 에 뽀뽀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연출은 다음 날

모든 배우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자 배우에게 물어보았다.

남자 배우는 “그냥 귀여워서 볼에 뽀뽀한 것 가지고 무슨 유난이야.”라고 했다. 아마 거기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 중 나이 많은 선배가 남배우를 나무라며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때는 그렇게 해도 됐었지만 요즘 애들은 달라.” 이 말이 아직도 묘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지,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그 날 연출은 배우들에게 돌아가면서 남배우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물었다. 언니는 옆에서 울고 있었고 배우들은 남배우에게 실망이라고 이야기했다. 남배우는 고개를 숙였고 그 자리에서 하차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선배는 나중에 뒤에서 연출을 욕했다. 공개처형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연출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소문이 무서워서, 인맥이 무서워서 이 좁은 바닥에서 쫓겨날까 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연출은 그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잘못을 인지하도록 했다. 그 이후 그곳에서는 여배우를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음담패설을 입에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되었다. #Metoo가 터지고 대학로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도 나이를 먹고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우리 때는 그랬다고 이야기한 선배가 될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 그 연출이 될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생각한다. 선배가 된 지금,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알던 모든 동화는 해피엔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이맘때였다. 나는 사회초년생이었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존 팀장님이 타 팀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팀장님이 입사하게 되었다. 그 뒤 경력직을 팀 내에 보강한다는 말과 함께 또 시간이 흘러갔다. 그때는 몰랐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그녀의 등장이 조용했던 회사에 큰 폭풍우를 몰고 오리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입니다.”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는 그분은 누가 보아도 굉장히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다. 작은 얼굴 안에 그 큰 눈과 오뎅한 코가 다 들어갔는지 꼭 TV 속 연예인 같았다.

팀 내에 예쁜 여직원이 입사했다는 소문과 함께 여기저기서 그녀와 술 한 잔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람들과 식사 한 번, 술 한 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때부터였을까?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이 또 한 번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도하기 이를 데 없어서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타 팀 과장님의 인사를 무시했다더라. 착할 줄 알았는데 싸가지가 없다더라. 본인 얼굴이 아닌 성형미인이다. 소문은 더할 나위 없이 악의적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대리님, 혹시 ○○과장님 마주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하셨어요? 제가 좀 그런 이야기

를 들어서 혹시나 해서요.... “아니요! 제가 인사드렸는데 술 약속을 거절한 뒤로는 제 인사를 계속 무시하세요.” 사건의 경위는 그랬다. 평소에도 예쁜 여직원들에게 깔떡거리던 ○○과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으나, 그녀는 사적인 자리를 거절했다. 그 뒤로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인사도 받지 않았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사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던 사람이기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헛소문들은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평화가 온 줄 알았다. 그녀가 내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씨, 잠시 조용한 데서 볼 수 있을까요?” 그녀와 단둘이 인적이 드문 카페로 갔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는 그녀가 오기 직전 먼저 입사했던 우리 팀 팀장에게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팀장이 그녀에게 술자리를 강요했고 직속상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가졌던 술자리들과 그녀를 자신이 챙겨야 할 팀원이 아닌 여자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대시를 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도 시도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입이 떡 벌어졌다.

스토커 수준으로 그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내에 서는 그런 일 없듯이 그녀를 대해왔던 것이다. 또한, “네가 나를 거

절하면 인사평가가 좋을 줄 알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해왔다. 그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팀원 모두에게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문제의 팀장 몰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만 하고 힘들어만 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동안 증거 수집을 해왔다. 그가 보낸 문자와 전화 기록을 모아왔고 그와의 대화를 녹취해두었다. 우리 모두 그녀의 편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녀는 더 큰 일을 만들기 전에 처음엔 팀장과 단둘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우리 모두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녀를 말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팀장에게 잠시 회의실에서 뵈 수 있을지 물었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고 그는 반성할 기미도 없이 책상을 들썩거리며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혹시 몰라 이 대화들을 녹음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직감한 것 같았다.

그녀가 여태 모아왔던 증거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 증거자료들을 모아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고 그때부터 그녀를 시작으로 우리 팀과 인사팀의 면담이 시작되었다. 옆에서 보기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유사 사례는 없었는지를 묻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불현듯 내 머릿속에 그가 내게 던졌던 언행들이 스쳐 지나갔다. “○○씨는 애 같아. 여자 같은 맛이 있어야지.”

둔했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아 그래요? 제가 아직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하고 넘어갔던 일. 회식 중 나도 모르게 그가 내 종아리를 만진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서 몸을 피했던 일. 내게 자기와 별도로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던 일. 그러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일. 그 안에는 ‘거절하면 인사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알 바 아니지.’라는 뉘앙스가 깔려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때 생각을 못했나 싶어서 갑자기 등줄기가 오싹하며 소름이 돋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상적인 상황들과 언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찻잔했던 일들을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내 소문과 집중 관심이 그녀와 내게 쏟아졌다. ‘그거 들었어? ㅇㅇ씨도 성추행 당했다던데?’ 내가 말했던 회식 자리에서의 일명 ‘종아리 사건’이 화두가 되면서 내게도 관심이 쏟아져 꽤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순차적으로 다른 팀원들도 지켜보던 일들에 대해 진술하였고 우리는 당연히 그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거나 잘릴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랑 다르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정의인가? 이게 다라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밖에 없었다. 사내 서비스 내 올라온 공지는 정직처분과 3개월 감봉이었다. ‘아니? 3개월 감봉이라고? 그렇다면 피해자랑 가해자랑 계속 같이 봐야 하는 거잖아?’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우리가 모두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해고까지는 어렵더라도 전환배치를 하거나 그 둘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도 이 결과에 대해서 당황한 눈치였다. 그 뒤 그녀가 처음 폭풍우가 치던 날처럼 내게 메신저를 보냈다. 잠시 볼 수 있냐는 메신저였다. 민사소송도 고려했으나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녀는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힘들었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해줘서 고맙고 용기 내어 인사팀에 증언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내게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녀는 회사를 떠났고 버티던 그도 얼마 못 가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회초년생이었던 내가 누군가의 사수가 되고, 꺼내기 힘들었을 그녀의 이야기에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용기가 되어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겪었던 큰 폭풍우로 인하여 성희롱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 앞장서서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회초년생 친구에게 직장동료가 술에 취해서 허리춤을 감싼 상황에서 저지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이런 것이 성추행인 것 모르냐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나쁜 의도가 없었다. 술을 마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100% 성희롱이거나 성추행이다. 그때는 해피엔딩이라고 느끼

지 못하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생기면 안 될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이번에는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가해자를 계속 보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떠난 그녀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정직 기간이 A의 남은 계약 기간과 같은 기간이었고, 연장될 줄 알았던 A의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을 뿐.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된 건지, 아니면 정규직 신분 안에 면죄부가 포함된 거였는지. 만약 정말로 그런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진 거라면 면죄부는 왜 피해자가 아닌 남이 주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순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A가 떠난 그곳에서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지금이라도 고소하라고 말했다. 몇 년 안 된 일이고 정직 처분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다.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내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다. 어두워진 A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죄라도 지은 듯한 표정이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할 때조차 화난 표정은 보였어도 어두운 표정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말이다. 내가 내 경솔함을 사과하기도 전에 A는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이제 괜찮다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아저씨들한테 웃어주지도 말아야 했다며 웃으며 말했다.

대화를 나눈 후로도, 그때 어두워졌던 그 표정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많은 시간 고민했을 것이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더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럴만한 이유

가 있었을 거다. 또, 그 사람과 회사에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며, 분노의 끝이 중국엔 자신에게 향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 많은 시간과 상처가 잠깐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그런 A에게 내가 한 말이 A가 자신을 자책했던 시간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던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는 A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책했는지도 알 것 같다. 그건 A가 비겁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A는 용감한 사람이고 정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저 용감함이나 정의와 거리가 먼 세상을 살아야 할 뿐이다. 만약 A가 고소를 하거나 그 일을 외부에 알렸다면 나는 A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보통의 회사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외부에 들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니까 A가 다닌 회사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 입사 때 쓴 비밀유지 각서를 빌미로 A를 협박했을 지도 모른다. 또, 한때 함께 밥을 먹었던 동료들,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변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속한 집단과 싸우는 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처음엔 응원한다고 말했던 이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선을 그으려 하거나 잊어갈 테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우고 만든 가짜라고 해도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지 않는 한 가짜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A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거다. 가장 두려운 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나는 사회에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웠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뉴스에서 본 사건들이 내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부자처럼 보이거나 웃지 않고 사람을 대하고 만만해 보이지 않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법을 알아놔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대책을 생각할수록 나는 더욱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한 대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데다가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나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쓴 거였고, 그러다 보니 애를 쓸수록 혼자란 생각에 빠져들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A는 그 후로 몇 번 더 그 일을 언급했다. 그때마다 이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지금의 A, 그리고 과거의 A에게 말하고 싶다. 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언제나 네 편에서 너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리고 A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동하고자 한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자책할 땐 잘못은 그 사람이 했다고 말하고, 잘못된 사람에게 네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함께 혹은 대신해 말하면서 말이다. 어쨌든 나 또한 그 A에 포함될지도 모른다. 또, 더

많은 A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 A들이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 눈물이 맺혔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볼까 빨리 진정하고 싶었지만, 그간 참아왔던 것이 터졌는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떨어졌다. 입사 초기에는 내가 잘못된 게 있는지 나를 되돌아봤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몰래 노력도 했다. 우연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 직원에게만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저 신경 쓰지 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지난 1년간의 나의 노력이, 나의 설움이, 나의 수치스러움이, 나의 마음고생이 묻어있는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왜 나를 괴롭히냐며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점심시간의 카페에서 그의 먹살을 잡으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킬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일 이후, 나에게 기분 좋은 평일은 완전히 없어졌다. 혹시나 하고 사던 출근용 치마와 원피스를 구매하는 일도, 새로운 머리스타일을 시도해보는 일도 없었다. 그 상사의 얼굴만 보면 “몸매가 볼품없잖아. 저번에 반바지 입고 온 거 봤어? 탄력이 하나도 없던데, 나는 재 80대 할머니인 줄 알았잖아.”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던 그때가 생각나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화장실도 잘 가지 않았다. 나는 점점 파티션 안의 좁은 공간으로 숨어들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숨길 수 없는 내 몸을 애써 숨기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퇴사했다. 좋아하던

회사였다. 합격한 소식을 들은 날엔 부모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뛸 정도로 가고 싶어 하던 회사였다. 그 회사를, 그런 회사를, 내 손으로 나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부모님께서 덤덤히 나의 퇴사 결정에 알겠다고 하셨을 때 내 마음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퇴사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 퇴사하고 얼마 동안은 80대 할머니 같은 탄력 없는 내 몸을 누가 보는 것이 싫어 한여름에도 긴 소매, 긴 바지만 입고 다녔다. 그리곤 미친 듯이 운동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점심을 먹고 헬스장에 가서 근력운동을 했다. 그리고 저녁엔 요가와 필라테스를 다녔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쯤 만약 내가 탄력 있는 몸이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뭔가 억울했다.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너무 억울했다. 회사에는 신문고 같은 피해 사실을 소리 낼 수 있는 창구가 분명 있었다. 심지어 성희롱하는 그 상사도 그 상자를 신입직원들에게 소개하며 힘든 일 있을 때는 익명으로 넣으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회사 내의 누구도 그 익명성을 믿지 못했다. 아니 믿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피해자의 편에 서기 위해 만든 그 상자가 가해자의 방패막이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얼마 전 나와 함께 일

하던 여성 직원 한 명이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도 나처럼 회사로부터, 그 상사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제 3자가 되어 그 소식을 들으니, 왜 도망치듯 퇴사를 했을까, 한 번이라도 그 상사에게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들었다.

꿈꾸던 회사였다. 하지만 꿈이었으면 하는 회사생활이 되었다. 얼마 전부터 미친 듯이 하던 운동을 줄이고 내 생활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좋아서 하던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훌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다시 또 어딘가에 취업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는 파티션에 숨는 회사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다졌다. 일 년에도 수십 번씩 보도되는 취업난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왜 성희롱 피해와 실직의 피해를 봐야 하는가. 앞으로 절대 그냥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도망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혼자 지낸 몇 개월 동안 나는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용기보다 누군가를 비난할 용기를 내기 더 쉽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건의 중심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현명한 방법을 찾는 중이다. 하지만 어차피 이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

하면 나는 또 힘없는 피해자가 되어 결국 퇴사의 길을 밟을 테니 파티션 안으로 내 몸을 숨기기보단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가해자임을 사람들에게 밝혀낼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내가 비록 신입사원에, 회사에서 가장 힘없는 약체라고 할지라도.

## 사각지대에 놓인 사라질 사람들



2015년 대학을 졸업 후 가난한 백수 시절을 보내다 모든 청년이 꿈꾸는 공기업에 파견직으로 취직했다. 모두 부러워했지만, 파견직 2년 사무보조였다. 취업에 목말라 면접 때부터 들었던 성희롱을 그저 가벼운 농담 따위로 넘겼던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나를 뽑았던 사십 대 기러기였던 차장은 직장에서 선망받는 분이였다. 면접에서 나를 뽑았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잘 보여라.”, “너는 나에게 충성해야 한다.” 등을 시작으로 저녁에 팀 회식을 핑계로 술자리에 여김없이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9.5 대 0.5 정도 되는 회사였기에 여자는 팀에 당연히 혼자였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질스러운 술자리 농담도 웃어 넘기고는 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성기’인 차장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거나, 술은 여자가 따라야 한다는 등 이 순간만 참고 넘기면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어있는 의자가 있음에도 기러기 차장이 직원들 앞에서 본인의 무릎에 앉으라며 아무렇지 않게 손짓했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나를 동정하는 눈빛만 서로 보내며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절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빈 의자에 앉겠습니다.” 기러기 차장이 황당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봤다. 다행히 다들 자리를 파하는 분위기라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도중 차장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 한 시간 내내 문자와 전화로 날 괴롭혔지만 무시했다. 한 명만

물리치면 끝이 날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 시절부터 수도 없이 당해 본 성희롱에 맞서며 견뎌왔던 나다.

그러나 내 신경이 기러기 차장에게 있던 것일 뿐 회사에는 비슷한 사람이 차고 넘쳤다. 복도에 위치한 내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모르는 사람이 눈앞에서 날 관찰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 “너무나 답답하게 자는 게 예뻐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부관리 좀 해야겠다.”며 지나갔다. 자존감이 점점 무너져 내렸다. 마음이 심란하여 15년째 재직 중인 비서실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스무 살 때 취직하여 못 볼 꼴 다 봤다는 그분은 결혼 후에 술자리에서 껏속말로 ‘남편과 잠자리는 일주일에 몇 번 하나’, ‘어떤 자세가 제일 좋냐’ 등 생각만 해도 피가 솟구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술자리에서 당한 성희롱을 문제 삼아도 아무도 성희롱 당한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아무 일 아닌 듯 치부하고 넘겨야 내가 상처 받지 않았다.

일상 성희롱을 무시하며 지내고 있는 어느 날, 발령으로 팀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다. 굉장히 점잖고 가정적인 쌍둥이 아빠였다. 나의 옷차림과 향수 등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지만, 부인에게 사주고 싶다며 물어보셨기에 나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과

장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남산에 가봤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럼요, 고등학교 때 소풍으로 갔었어요.” 과장님은 기쁜 기색으로 “가봤구나, 나는 결혼기념일이라 남산이 보이는 호텔에 다녀왔어. 남산이 보이는 곳에서 해보니 색다르고 좋더라. ㅇㅇ씨도 나중에 남자 친구랑 가봐.”라는 말을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내가 들은 얘기가 정말 맞는지 자리에 앉아서 수도 없이 고민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은 사내 부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또한 아무 일 아닌 듯 넘겨버렸다.

그날 거래처와 회식이 있었다. 기분도 좋지 않았던 터라 1차만 끝나면 집에 바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데 같이 갈 곳이 있다며, 과장님께서 한사코 날 끌고 갔다. 지하로 이어진 술집이었다. 인원은 5~6명이 있었지만, 여자는 나 혼자였다. 무대가 있는 가라오케였다. 평생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라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들어올 때는 여자가 나 혼자였지만 그곳에 종업원은 모두 내 나이 또래 여자였다. 과일 접시를 가져온 종업원들은 과일을 집어 남자 손님들 입에 넣어주었다.

그 순간 나가기 위해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서려는 나에게 과장님은 무대에서 노래 한번 해보라며 등을 떠밀었다.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제가 살면서 가라오케에 오게 될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놀라서 당장 달려오실 거 같네요. 전 집에 가보겠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막내 직원이 계단까지 달려 나와 나를 잡았다. “지금 가려고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에는 나보다는 씩씩거리며 화가 난 과장이 더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당당히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당장 내일이 걱정되었다. 그러자 이내 내가 웃으며 넘기고 노래 한 곡 했으면 모두가 즐거웠을까? 등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자책하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웠다.

잠 한숨 못 자고 썩한 얼굴로 출근을 했다. 인사를 하며 나도 모르게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한테 미안한 기색도, 화난 기색도 없이 다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하며 하루를 보냈다. 파견직인 나는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없어질 사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술자리에 동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점심 식사에도 함께할 수 없었다. 혼자 남겨진 채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며 파견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이 종료되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직장 내 성희롱’ 캠페인 중에 파견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직장’이라는 이미지에 ‘정규직’만 범위에 넣는 이들이 아직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어 상처받는 이들이 없기를 바란다.

- ▣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 ▣ 성희롱은 찢은 상처다
- ▣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불편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으로
- ▣ 할 말은 해야겠어!
- ▣ 나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 ▣ 싸움꾼
- ▣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 #3

공포와  
불안에서  
분노와  
경고로

##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Y.S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다. 나는 다른 외국인들처럼 많은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나는 한국에서 학교도 다녔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레고처럼 쌓여 있는 신기한 한글을 배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친구와 현재 나의 짝이자 내 편인 남편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역동적인 한국 생활에 매료되어 대한민국에서 살기로 했다. 2010년부터 한국 생활을 해 온 나는 2017년 첫 직장에 취업했다. 그렇게 2017년부터 비록 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경력을 쌓았고 소중한 인연들도 만들게 되었다.

외국인 직원 같은 경우 주로 계약직 채용이 많아 길게 한 자리에 머물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 2019년 어느 겨울날에 채용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드디어 어느 제조 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할 기회를 얻었다. 비자 지원까지 해 주는 이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매우 컸다. 그래서 이 고마움을 갚고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나의 직종은 해외 영업이었던 만큼 사무실 내 업무부터 거래처 측 이슈까지 모두 담당해야 했고, 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매일 공부했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문제없이 흘러갔다. 그런데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나는 담당 국가 관련 보고를 위해 상사 방에 들어갔다. 내가 준비한 보고를 마친 뒤 나가려던 참에 상사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너 주변에 스폰 받아 볼 생각 있는 같은 나라 친구 있니? 스폰이 뭔지 알지? 내가 용돈이랑 집세 좀 지원해 주는 대신 나랑 놀아주면 돼. 내 비위 맞춰 주면 돼.” 한국 생활이 10년 차인 나는 이토록 모욕적인 일을 당해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정기 깊은 나라’ 한국이 나에게 준 감명과 영감은 일순간에 실망감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 방에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난다. 나는 그 하루를, 그리고 그 후에 한 달을 고민하면서 힘들게 보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돌고 돌았다. 그런데 그 상사는 나를 보면서 “너, 다이어트 좀 해.”, “외국인들은 엉덩이가 참 크네?”, “너, 커피 설탕 안 들어가는 아메리카노만 마셔.” 등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다. 그 뒤 나는 다른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너는 화장 왜 안 하니, 못 생겨 가지고.”, “어이 납작이, 넌 왜 앞뒤로 그렇게 납작하냐.”, “저 PPT 색깔이 왜 저리 생리 색이야 뭐야?”, “너는 살만 빼면 예쁘겠네.”, “여자는 어차피 임원 못 돼.”

이처럼 매일같이 외모를 비하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그는 남자 직원들에게도 심한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했다. 심지어 회사 내규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예방 교육이 진행될 때도 “우리 때 비서나 여직원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면서 커피 갖다 달라고 했다. 언제부터 여자들이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 여성

인권이고 뭐고 타령이야?”와 같은 성차별적인 말들을 했다. 나는 고민이 정말 많았다.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해 말을 하면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말을 안 하면 다른 여성 직원들도 나처럼 계속 당할까 봐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민 끝에 나는 인사팀과 통화를 하였고 사실대로 말을 했다. 앞으로 나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나의 비자 지원이 어떻게 될지 다 뒤로 하고, 나는 성희롱을 신고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화를 기다렸다. 나는 인사팀의 힘을 믿었다. 그런데 변화는 없었다... 내가 기다린 그 미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나만의 유토피아, 나만의 환상이었을지도...

시간이 흘렀지만,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여름 그는 일상처럼 또다시 그랬다. 그는 영업 추이 회의를 하는 동안 팀 워크숍으로 래프팅을 가자고 하며 여성 직원들에게 비키니 입고 오라고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물론 나중에 장난이라고 변명했다. 그때 나는 분노가 목까지 차올라 지금까지 그 상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 상사에게 용기를 내어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사과하는 동안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이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녹음을 보관 중이다. 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다. 나는 노동부 페이지에 들어가 민원 신청 창을 몇 차례 열다가 닫고, 열다 다시 닫곤 했다. 나는 성희롱을 신고하려고 할 때마다 동료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

랐다. 그 상사는 현재 경영진과 실무자들 사이에 소통의 다리이며, 많은 이슈를 해결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동료들이 분명히 힘들어할 것이고 사무실 내 혼란이 많을 것이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비자와 일터를 제공해준 이 회사에 대해 ‘먹던 우물에 침 뱉기’와 다름이 없는 행동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2020년 10월,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내가 그만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더군다나 도망치고 싶어서도 아니다. 나는 변화가 없는 이 일상에 지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여 매일같이 나는 죽어갔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나는 고발한다. 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다. 나는 노력했다. 그리고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무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예전과 똑같이 일했는데 지적을 당하고 부당한 욕설도 들어야 했다. 성희롱에 직장 내 괴롭힘이 더해지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단기간에 체중이 5kg 넘게 빠졌다. 회사에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회사는 ‘엄격한 처벌’을 약속했으나 돌아온 것은 가벼운 경고였다.

성희롱은 범죄다. 그들은 범죄의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일 텐데 그 기본은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다. 첫 번째 성희롱 사건 이후, 그 단체로부터 통역 일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 성희롱 때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피해자인 내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그 순간에도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점이다. 나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피해자는 “괜히 고발한 것 같다. 사실 그건 성희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참지 못한 게 아닐까 후회된다.”고 울먹였다. 나는 당신이 당한 것은 성희롱이 맞으며,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피해자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성범죄 가해자들은 가끔, 아니 자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덮어 씌운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만지지는 않았으니 성희롱이 아니다.”,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농담이었다.”며 얼버무리려 하는 가해자도 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들 한다. 요즘에는 ‘농담’이 통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되었다. 애초에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성희롱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비난받기 싫으니 농담이라는 말로 비겁하게 도망친 것뿐이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잘못되었다. ‘조심’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인식의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은 수직 관계로 인한 ‘권력형 성희롱’일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지위가 피해자보다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며, 고발한 뒤에도 보복을 걱정해야 한다. 회사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식의 강화를 위해서는 언론과 정부가 동시에 나서야 한다. 언론은 성희롱과 처벌 사례를 기사화해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명확하게 내놓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수박 겉핥기가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직장 내 성교육도 대책에 포함해야 옳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당당한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세뇌했다.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분노’로 바뀌어야 하며, 그 분노는 정당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면, 성희롱은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 같은 것이다. 그것도 인도에 가만히 서 있다가 불쑥 인도를 침범한 차에 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누구를 처벌해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런데 차의 운전자와 어떤 목격자들은 인도에 서 있기만 했을 뿐인 피해자를 공격한다. 피해자는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에 두 번 상처 입는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다친 것도 모자라 죄책감과 정신적인 상처까지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책임지는 것이 가해자와 사회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늘어놓은 방법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기 때문이다. 맞다. 내가 제안한 방법은 병을 고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숙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의사의 말과 비슷하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귀찮고 시간이 없다 해서 싸구려 진통제를 택하면 병이 낫지 않듯이 성희롱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오래된 병이요 끓아서 냄새가 나는 썩은 상처다. 상처에서 냄새가 난다고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야말로 한국 사회의 목숨을 쬐먹는 이것들과 정면으로 맞설 때다.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불편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으로



“손 좀 쥐봐.”

첫 직장, 스물다섯 살이던 나는 어리둥절했다. 팀장이 왜 손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거둬드는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구석진 팀장 자리 옆 간이의자에 앉은 나는 어정쩡하게 손등을 내밀었다. 팀장은 망설이며 내민 손을 책상 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그 위로 손을 포갰다. “손이 왜 이렇게 차. 원래 그래?” 팀장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보며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매몰차게 손을 빼내기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정말로 신입 직원을 걱정해서 손을 잡아주는 거라면 그저 손을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할 것 같았다. “네, 원래 손이 차요.”라고 답하는 나를 한참 바라보던 팀장은 손에 땀이 찰 때 즈음에 서야 손을 놓았다. 전 직원 중 여직원은 나와 사장님의 누나, 단 2명인 작은 회사에서 내가 느낀 불쾌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별일 아닐 거라고, 내가 뭔가 오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점점 잦아졌다. 팀장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개인 업무 일정에 나를 참여시키기 일썬였다. 내 손을 잡았던 팀장의 손은 팔꿈치로, 팔뚝으로, 어깨로, 이따금 찾길을 걷기라도 하면 허리 뒤로 향했다. 그럴 때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듯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얼굴은 손을 뿌리칠 용기를 삼키게 했다.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타고 가자.” 팀장의 행동에 대한 불

쾌감이 팀장과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번져 1년만 채우고 퇴직금을 받아 퇴사하자는 결심을 한 이후였다. 1년을 몇 달 앞두고 팀 회식을 마친 나를 팀장이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얼떨결에 뒷좌석 안쪽에 앉은 내 옆으로 팀장이 앉았고 택시는 신속히 출발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빨리 알던 팀장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불렀다. “우리 집에서 한잔 더 하고 가. 자고 가도 좋고.”

불쾌감, 거북함이 아닌 공포가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택시 기사에게 다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팀장에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택시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나를 힐끔 쳐다만 볼 뿐 멈추지 않았다. “세워요?”라고 묻는 것은 팀장을 향해서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팀장이 “아뇨, 가주세요.”라고 답하면 그대로 주행했다. 오랜 실랑이 끝에 인도도 없는 8차선 도로 갓길에 겨우 차를 세웠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내리자마자 팀장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내일 봐.”

택시를 잡을 수도 없는 도로를 걷고 걸어 겨우 시내에 도달할 때까지 공포감은 가시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 사이에서 어두운 도로 끄트머리의 노란 불빛을 향해 가는 동안 나는 내가 당한 일을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 채 울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얻은 원룸에 도착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가늠

하지 못했다. 성폭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거의 없었던 20대의 나는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다음 날 아침, 지친 채로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팀장은 내가 무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를 불러 “어제 내가 무슨 실수한 거 없지?”라고 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대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두 번째 회사에서 가까운 직장 선배에게 첫 직장 팀장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모조리 성희롱과 성폭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한 이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정보를 찾아 읽었다.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락이라도 해봤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완전히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는 후회를 그만뒀을 때에야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각오는 비단 나를 향한 성희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첫 직장의 팀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은 흔하게 일어났다. 성희롱은 여성의 나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너무나 가볍게 일어났다.

“아줌마! 아줌마가 무슨 그렇게 야한 옷을 입고 다녀?”와 “역시 우리 ○○팀장은 젊고 싹싹하니 좋다니까. 회식할 때는 꼭 ○○팀장 옆에 앉아야 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입을 다물고 웃어준다는 공통점까지도 꼭 닮아있었

다. 나는 피해자로 남지 않고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가장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자신은 괜찮다고 웃어도, 반드시 그것은 성희롱이라고 지적하고 신고 방법을 따로 전달했다. 직장을 옮기면 책상 위에 직장 내 차별과 성희롱을 지적하는 인쇄물을 올려놓았고, 그런 문구가 쓰인 달력이나 엽서를 세워두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유난스러운 여자가 됐고 누군가에게는 믿을만한 동료가 됐다. 40대, 50대를 지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순간까지 나는 더욱 불편하고 유난스럽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일할 작정이다.

## 할 말은 해야겠어!

홍 지 승



“주방에 설거지하러 가기 너무 꺼려져...”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의 말이었다. “왜?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래? 나도 설거지 좀 귀찮긴 하던데 꺼려질 정도는 아닌데?”, “아니... 설거지하고 있으면 주방 오빠가 지나가면서 은근히 허리 만지고 다른데 만지는 것 같아서. 넌 못 느꼈어?”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의 주방은 싱크대가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주방에서 매장으로 나가려면 싱크대를 지나쳐 가야 하는데 그 공간이 매우 협소했고, 성인 두 명이 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밀착해야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친구의 말을 들어서일까? 다시 생각해 보니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던 생각이 들었고, 그 날 이후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터치가 있었고, 처음엔 실수겠지 하고 주방 직원이 매장으로 나가려고 할 땐 길을 비켜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없이 쓱 다가와서 허리를 잡으며, ‘지나갈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놀라 처음엔 어리바리하며 그 상황을 넘겨버렸다. 이 상황을 이렇게 어이없이 넘어간 게 너무 후회됐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에 “홀로 나갈 때 말씀해주시면 비켜 드릴게요. 그럼 서로 편하잖아요.” 라고 예들러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좋게 한 말의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마치 코웃음이라도 치듯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난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아니! 지나갈 때 얘기하면 비켜준다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너 일하고 있으니까 불편할까 봐 그랬지. 그래서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 “나가기 전에 미리 ‘나 나갈 건데 좀 비켜줘’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허리 잡고 나가면서 ‘지나갈게’ 하면 그건 제가 안 불편할 것 같고요?”, “아니. 난 그냥...”, “오빠, 이거 성희롱이에요! 오빠 지나갈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래서 비켜드리겠다고 돌려 말한 건데 왜 계속 그렇게 지나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부터 주의해주세요!”

순간 매장의 분위기는 싸해졌고, 주방 직원은 민망한 얼굴로 알겠다고 주의한다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 이후 주방 직원은 조심해서 친구와 나를 대하는 게 느껴졌고, 서로 얼굴 보는 게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이내 불편한 마음은 점차 사그라졌다.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물쭈물 말 못 하고 고민했던 내 상황이 씁쓸했다. 만약 거기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난 그 상황을 빠져나왔겠지만,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회피할 것인가?란 물음이 생겼고, 또한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다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그 주방 직원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내가 성교육을 받을 땐 너무 두루뭉술하고, 누군가 내 몸을 만질 땐 싫다고 말하라는 방법밖에 배우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싫다는 말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할 말 다 하고 사는 내 성격에도 저 말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에게겐 과연 싫다는 말 한마디가 쉬운 일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단순히 싫다는 말을 넘어선 대처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의 입에서 싫다는 의사가 나올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교육하고, 성범죄 관련된 법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나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소금집 로아(ROA)



○○기업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대리로 재직 당시, 대표이사  
와 여자 차장, 그리고 남자 과장과 나 (그때 당시 28살) 보다 어  
린 여자 사원 두 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가장 막내 사원인 ○○씨  
는 스물네 살 경리로, ○○씨는 스물여섯 살에 엄청난 영업팀 엘리  
트로 내가 참 좋아했던 친구들이었다. 항상 이 두 명과 셋이서 밥  
도 같이 먹고 일도 늦게까지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입사 2개월 차  
인 내 눈에는 커피 문화와 팀 전체 회식 분위기가 납득이 가지 않  
았다. 남자 과장은 항상 자기 손으로 절대 커피를 타지 않았다. 당  
연히 대표이사가 늘 그렇게 해왔기에 본인도 여자 차장이 타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그 밑에 막내가 들어오니 당연히 막내 사원이 커피  
를 탔다. 이 정도는 내가 같이 타주고 돌릴 수 있는 문제여서 넘  
어갈 수 있었지만, 전체 회식 경험은 나를 속에서부터 천불이 끓어  
오르게 하기 충분했다.

대표이사는 오십 대 남자였는데, 식당에 가면 자꾸 지갑에  
서 현금을 꺼내 들고 서빙하는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손짓으로  
불러서 세우곤 했다. “엄마, 아빠 뭐 하시나?” 처음 우리 테이블로  
서빙을 오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기 손에 쥐어진 오만원권 지폐  
를 보고 좋아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돌아갔다. “○○이  
도 이리 와봐.” 막내 사원을 대표이사가 부르는데 웬지 대표이사  
테이블로 가는 표정이 어두웠다. 오만원권 지폐를 건네면서 한다  
는 대표이사의 말이 기가 막혔다. “○○이 오늘 치마 입었네? 한

바퀴 휙 돌아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내 위 두 팀장(7세 아들을 둔 여자 차장과 두 딸을 둔 남자 과장)모두 모르는 척 반찬을 집어 먹으며 다른 데를 보며 얘기만 나눈다는 것. 철저한 외면이었다.

나는 이제 입사 2개월 차였고, 두 친구는 1년 차였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막내 ○○씨는 1년 동안이나 저런 성희롱을 당했을 거라는 것. 바지를 즐겨 입는 ○○씨와는 달리 한참 옷을 좋아할 나이의 ○○씨는 원피스나 치마를 즐겨 입으니 타깃이 됐겠지. “오늘 ○○이 같이 노래방 가야지? 아이돌 노래 춤출 줄 알아?”, “네? 저 오늘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래? 예이 아쉽네.” 여기에서 더 듣고 있어야 했던 걸까. 나는 참지 못하고 씹장과 마늘을 가져오겠다며 ○○씨를 데리고 셀프바로 나왔다. “○○씨. 남자친구 지금 만나러 가. 데리러 왔다고 하고.”, “네?” 적잖이 놀라는 모습에 더 안돼 보였다. “노래방은 내게 맡겨. 나 킬리만자로의 표범 잘 부른다.”, “그게 뭐예요?”, “조용필 노래. 꽤 좋아할 거야. 그니까 여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막내 둘을 보내고 우리끼리 마시자고 제안한 내 말에 대표는 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회식을 거나하게 하고 대표이사의 눈 밖에 났다. “에이~ ○○씨가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돌아봐가 뭐예요. 대표님은 따님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귀여워하시면 안 돼요~” 일그러진 얼굴의 대표와 남자 과장을 뒤로 하고, 나는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고 나왔다.

3개월 되던 달에 대표이사와 단둘이 회사 근처 카페에 따로 출근했고, 권고사직을 받았다. “○○씨는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하하. 그래서 지금 저 권고사직인 거죠?” 쿨하게 잘린 뒤,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중. 회사를 잘린 지는 6~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셋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낸다. 곧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 셋이 한번 뭉칠 생각이다.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 ○○회사에서 엑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동일한 부류의 이사를 만났다. 업무자료 가지고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가보면 거래처 사장들과 으레 술을 마시고 그렇게 내 손을 만져보자고 했다. 이 말에 스물세 살의 내 나이답지 않게 말한 적이 있다. “오, 대표님 제 손 한번 잡고 경찰서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때 이사가 뭐라고 했었더라. “아이고, 아그야. 무서워서 쓰겠냐. 너 엉덩이 한번 만지면 아주 난리가 나겠대잉?”, “그럼 제가 바로 대표님 사모님한테 전화하지 않을까요.”, “아따! 참말로! 너 가라 그냥.” 그래서 묵묵히 고기 다 먹고 조용히 인사하고 나왔다. 이후, ○○회사 대리로 재직 당시에는 부산 출장도 당일로 갔다 올 정도로 외근과 해외출장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여직원은 술 심부름이나 업무 이외의 일까지 맡곤 했다. 업무 확인차 수입된 물

건을 보고 있는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요즘에 입맛이 별로 없어. 여자 빼고는 맛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정말 입이 벌어질 만큼 경악한 적이 있다. 그 사무실에 분명히 6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이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사무장님. 지금 그 발언 굉장히 위험하신데!!! 여기서 제가 입만 뽕끗하면 바로 비용~ 비용이에요! 굉장하죠?” 이 말에 의자에 비스듬히 눕다시피 앉아있던 사무장이 당황해서 의자를 고쳐 앉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위계에 놀려 행해지는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성희롱 예방교육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상당히 점잖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희롱을 자행하고 있는지 짚어주고 때로는 꼬집어 줄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식의 개선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여자로서 매력이 있어 상품가치가 있는 여성이 아니다. 업무능력으로 평가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그를 통해 성장을 해나가야 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불합리한 성희롱으로 미래의 젊은 친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더 없기를 바라며, 내 작은 에피소드들이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싸움꾼



빅토르 위고에 의하면,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 둘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 셋째는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훗날 동네에 이름난 싸움꾼을 탄생시킨 나의 어머니 ○○씨에 의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사리 지는 법이 없는 독 오른 전문 싸움꾼이었다. 전 국민을 불구덩이에 재처럼 몰아넣고 퇴약별이란 연료를 내리쬐면, 일명 역대급 무더위라 회자되는 2016년에도 나는 미니 선풍기를 목에 거는 대신, 길 가다 받은 홍보용 부채 하나로 자연에 승리했다. 또 수능을 치른 해엔, 한평생 끈기 있게 한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59만여 명의 수험생 인간병기들과 경쟁해 서울에 있는 대학 진입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 뭐, 당장이라도 가슴팍 옆에 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를 낭독할 수 있을 만큼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며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 상대를 한 방에 KO 시키는 무하마드 알리의 아큐 펀치처럼, 나는 내게로 덤벼드는 것들을 제압함으로써 나를 증명해냈다.

챔피언 벨트를 단 후로는 은퇴 수순을 밟을 줄 알았건만. 인생은 끝나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했던가. 지뢰를 밟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짜 싸움은 사회란 격전지에 비무장 상태로 발을 들이 밀고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뢰탄, 아니 ○

○씨가 어깨를 두드리며 꺼낸 말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요.”였다. 일로 만난 사이에서 굳이 두터운 사이로 진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생활 필수범주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안부를 물어오면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고, 눈이 마주치면 목례를 교환하고. 이런 사소하면서도 당연한 일들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모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정말로 그러지 않았을 거다. 며칠 뒤 ○씨의 집이 나와 지하철 반대 방향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물망에 걸려든 뒤였다. 호기심. 그놈의 호기심이 문제다. 일본 만화책을 챙겨 다니는 ○씨에게 “일어를 잘하시나 봐요.”하고 건넨 호기심에, “그동안 만난 남자친구들도 다 잘할 걸요?”, “네?”, “야동 보고 다 배우거든요. 킁킁.”

던진 쪽만 웃긴 저급한 농담이 돌아왔다. 따라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반응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 생각했다. 침묵이 모질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나 보다. 사무용품을 건네줄 때 은근히 겹쳐지는 손가락, 장난이랍시고 부르는 ‘공주님’ 호칭, 반창고를 붙인 무릎에 “뽀뽀해드릴까요?”, 붙는 옷을 입고 가면 은근히 훑는 치욕스런 시선.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는 당혹스런 마음에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인 적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진 것은. 생리통에 시달리며 배

를 움켜잡고 있는 내게 또 시답잖은 농담을 건네는 ○씨를 무시한 날이었다. 미적지근한 반응에 시시했는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콕콕콕 찌러댔다. 진전없는 대화가 오갔다. “뭐 하시는 거죠?”, “네? 뭐가요?”, “왜 제 몸에 손대시냐고요.,” “그냥 장난친 건데요?” 장난하나 진짜. 벽이랑 대화하느니 사람과 대화하는 게 낫겠다 싶어 찾아간 실장님께 돌아온 대답은 “한 번 참아요.”였다. 평생 이기는 싸움만 해왔던 사람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과장님을 찾아갔다. “증거는? 동영상 같은 거라도 찍어뒀어요? 문자도 아니고, 카톡을 한 거면 남자 쪽에선 호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잘못 대처한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고개 돌려 함부로 시계도 쳐다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이런 거였던가. 다부진 쇼트커트, 바지정장을 펠럭이며 걷는 당당한 걸음걸이, 멋진 여성상이라 생각했던 과장님께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엿한 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해결사랍시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공간에 들어와 다짜고짜,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된 거죠?”라니. 피해자 입에 수갑을 채운 꼴이었다. 이놈의 회사는 죄다 길치들만 입사시킨 건지, 수군거림의 화살이 방향을 꺾어 내게로 돌아왔다. 성희롱을 범한 자는 되레 잘 못 걸린 피해자가 되고, 피해를 본 자가 웅덩이를 흐리는 미꾸라지 취급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졌다. 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이곳엔 없겠구나.

나는 나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곧장 주짓수 도장을 끊었다. 물리적으로 약한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술이라는 데에 이끌렸다. 사실 수련을 통해 근력을 득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옆자리에서 옆, 옆자리로 옮겼을 뿐, 염치없는 ○○씨는 여전히 무례한 시선으로 나를 수치심이라는 깊은 수심에 빠뜨려 허우적대게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언제든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그 자신감만으로 충분했다. 몸이 강해지니 자연스레 마음도 강해졌다. 고백하자면 나는 퇴사를 고민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이율배반적인 막장드라마 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이 어찌면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떠밀리듯 도망친 내가 선례가 될 것이었다. 과거의 비무장 상태에서 현재는 인간병기로 진화하지 않았는가. 물론 턱없는 과장이지만. 살면서 용기를 부풀려야 하는 순간도 있는 법이다. ○○씨의 눈을 응시하고 경고사격을 발사했다.

“저 요즘 운동 배워요. 덕분에요. 한 번만 더 무례한 행동 하시면 그때 안 참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병쩨 표정이 꽤 통쾌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나.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싸움의 연속이라면, 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터득할 거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

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첫 단계다. 수치심에 빠져야 할 건 함부로 선을 넘은 무뢰한들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이여. 고개를 들라. 이제 어깨를 펴고 아령을 들 시간이다.



“그러게, 친하게 지내되,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내 호소에 대한 답변이었다. 다음날 직장 비상 대피소에 몸을 숨기며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와중에 지각한 담당자는 그런 나를 보며 짜증을 내며 얘기를 꺼냈다.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도 장난치고 그랬다며.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했잖아. 친하게 지내되 선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니까 너도 어느 정도는...(가담을 한 거잖아)”

장난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내 대처가 그자의 장난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으나 담당자는 짜증 섞인 말들로 나를 찔렀다. 날 이해한다며 듣기엔 좋은 말을 하던 대표 역시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말했다. 그 길로 인터넷에서 ‘직장 내 성추행’을 검색했다. ‘여성가족부’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약속된 날짜에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담당자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셨다. 심리상담을 받아보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배려해야 하고 웃어른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비틀린 증오, 그렇게 증오하는 내가 패륜아 같다는 죄책감에 괴로웠다. 가해자 따위에 내가 망가졌다는 생각에 무력감까지 불시에 찾아왔지만, 상

담과 지지를 받으며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던 것 같다. CCTV 자료와 증거의 훼손, 기소된 이후로도 지속된 가해자 지인들의 연락, 애매한 처벌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법에 대한 불신에 불안감이 컸지만 여성가족부와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신속한 안내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강의 40시간. 그 ‘장난’에 따른 결과다.

다 괜찮아진 줄 알았다. 고단했던 소송이 끝날 즈음 다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3차례 미뤄진 선고일 1주 전에 급히 취업했다. 전보다 바빠 일하며 직장에 적응하고 나니, 문득 이질감이 느껴졌다. 분명 내가 나약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무리했던 것은, 그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강박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내게 잊으라고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말했고, 나는 고민 없이 잊었다. 완전히 잊고 다시는 껴지 않겠다 다짐들이 내 자신을 옅어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온전함을 잃은 채 마냥 곤두서 있는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도 계속된 멍멍함은 법적인 처벌로도 해결되지 않은 멍을 때문이구나. 나아가 나는 아직도 나에게 일어난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나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 괜찮아진 줄 알았으나 어떤

것도 괜찮아지지 않았음을. 장장 4개월간의 성추행, 회사의 방조, 8개월간의 소송. 모든 일이 벌어졌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소송이 끝났고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억울함과 후유증을 외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상적으로 일하며 사람을 대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현재에 마냥 감사해야 할 의무도 없다. 나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기회가 닿는 대로 괜찮아지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되, 피해자임을 잊지 않겠다. 당신들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작업할 때 극도의 스트레스로 하혈을 할 정도였다. 기억을 소환해내며 글을 쓰며 며칠을 앓았다. 사건을 짚어가며 써 내려가다 보면 그 순간의 감정들이,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여전히 피해 당시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예민하다. 습한 나무 냄새, 풀냄새, 물비린내, 주황빛의 전구 색, 원목 가구, 가해자와 흡사한 외모, 언행 등을 조금만 인지해도 식은땀이 난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소송을 진행하며 관련해 꾸준히 글을 쓰며 ‘아... 나, 참 많이 노력했구나. 치열하게 끝까지 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괜찮아지지 않는 것이 맞다. 가해자의 범죄는 잊힐 수 없고 나 또한 잊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니 여태껏 괴로워한 억울함도 죄책감도 당연했

다. 나와 같이 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여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맞서고 있다고. 당신이 모르는 많은 사람이 당신의 건승을 바란다고. 혹여 당신도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이 마음이 닿기를 바란다.

- ▣ 모기 효과 : 모기가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
- ▣ 나를 버리지 않고 30년 일할 수 있는 곳
- ▣ 후배에게 못다 전한 이야기
- ▣ 후배의 눈물
- ▣ ‘혼자’가 아닌 ‘우리’일 때
- ▣ 현명하게 칭찬하기
- ▣ 우리는 성별 외에도 많은 것이 다르다

## #4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점 잇기



단어가 불현듯 귀에 박힌 것은.

“하야간 암컷들이 문제라니까!”

순간, 엘리베이터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찬물을 끼얹은 듯’이라는 표현은 수사라기보다 감각에 가까웠다. 나는 정말로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어안이 병병했으니까 말이다. 물벼락이 쏟아진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이었다. 곧바로 눈이 마주쳤다. 방금까지 부러워해 마지않던 사원증에 있는 얼굴과 같은 사람이었다. 다른 것은 웃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었다. 그대로 몇 초가 흘렀다. 엘리베이터에는 알 수 없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비슷한 말을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사원증을 반납하고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직원용 휴게실에 있던 커피 머신이 자주 고장이 나자 관리팀에서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혹시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고 휴게실을 함께 공유하는 부서 직원 몇몇이 모여 상의하던 중이었다. 이전에 쓰던 커피 머신이 워낙 예전 모델이기도 했고 같은 예산이면 이왕 바꾸는 김에 성능이 좋은 기기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리스트를 주려내고 있는데, 마침 외근을 나갔다가 돌아온 차장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커피 머신

위에 붙어있는 X 표시를 보자마자 또 고장이냐며 한숨을 쉬는 그에게 직원 중 누군가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다소 통명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대충 아무거나 사면 되지, 커피 머신 하나 사는데 무슨 상의씩이나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누가 여자 아니랄까 봐.’ 귀찮다는 듯 휘휘 손을 내젓던 모습은 꼭 컷가에서 앵앵대는 성가신 모기를 쫓는 손짓과 비슷했다.

대체 모기와 커피 머신이 성평등한 일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암컷’이란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이었고, ‘암컷’이란 ‘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는 쪽’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자는 ‘모기 보고 칼 빼기’격이라며 웃을지도 모르겠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단지 모기의 흡혈이 암컷에 한정되었다는 이유로, 암컷 모기가 본인의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모든 암컷을 그 자리에 있던 영장류 인간까지 포함하여 ‘문제’라 이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번식 활동에서 암수의 역할과 방식이야 저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번에 뛰어넘어 ‘암컷들이란!’으로 향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차별이 아닌 평등을 지향하는 조직 사회에서는 말이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결과를 떠나 면접에 응시한 회사 자체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면접에서 받은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 엘리베이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거리낌이라곤 조금도 없던 말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뜻 모를 적개심을 내비치던 눈빛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만약 그 날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으면 어땠을까. 예컨대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 같은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올해 들어 유독 모기가 극성을 부린 것은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모기 유충이 얼어 죽지 않고 부화했기 때문이라든지, 모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로운 곤충이 늘어나 앞으로 피부병이나 전염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모기’라는 주제로 훨씬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공고를 찾아볼 때마다 생각한다. 공고에 제시된 연봉이나 복리후생, 회사의 위치나 시설처럼 현실적인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나에게 얼마나 무해한 곳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성별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단어가 ‘성가신’, ‘피곤한’, ‘까다로운’, ‘예민한’ 등의 맥락으로 오용되지 않는 곳.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더라도 들린 이상 편히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오가는

곳이면 좋겠다고 말이다. 희망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취준생에게 다행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나비가 아니라 모기가 일으킨 작은 바람이 내일의 나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또래의 젊은 여자 직원들과 직급이 높은 남자 관리자로 구성돼 있었다. 첫 일터인데다, 처음 만나는 높은 연배의 관리자 앞에서 나는 기합이 잔뜩 들어갔다. 친절하고, 공손했다. 또래의 다른 동료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친절했다. 그렇지만 그 친절은, 그 다름은 매일 손쉽게 비교됐다. “A씨는 참 여성스러워, 인사에도 그게 묻어 있잖아.”, “남자들 많이 흘렸겠어.”, “젊은 아가씨 인사를 받으니 나도 젊어지는 것 같은데.”, “B씨는 왜 이리 무뚝뚝해.”, “B씨처럼 하면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A씨가 좀 가르쳐 줘봐, B씨도 시집은 가야지.” 아빠를 닮아 친절한 나는 어느새 ‘시집 잘 갈만한’, ‘여성스러운’, ‘젊은 아가씨’가 되었다. 방식이 다를 뿐 늘 정중하고 공손했던 B씨는 ‘무뚝뚝하고’, ‘남자들이 싫어하는’, ‘내가 가르쳐야 할’ 동료가 되었다. 나는 점점 어떻게 웃어야 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친절할수록 받았던 ‘칭찬’은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불과 5년 전 일이다. 성평등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며 공부했고 자라온 나도, 부당한 성차별과 여성비하 이슈에 화내며 목소리를 높였던 나도, 막상 첫발을 내디딘 일터에서 쏟아지는 말들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친구 사이에서, 학교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몹시 다르다는 걸 알았다. 아마 내 또래의 동료들 모두 몰랐고, 모두 깨달았던 것

같다. 우리는 다만 울고 싶은 표정으로 웃거나 더는 나오지 않는 웃음에 입을 다물었다.

첫 일터를 거친 후 나는 친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좋아했던 나의 모습이 결국엔 어떤 틀 안에서 읽히는 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 내가 좋아했던 나의 모습이 ‘젊고 상냥한 아가씨’로 불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을 흔든 뉴스들을 접하며, 친절한 개인이 결국에는 ‘먼저 홀린’, ‘남자를 꼬시고 다니는’, ‘자기가 자초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 또한 보았다. 아빠는 친절함으로 30년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마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사람이 아닌 ‘여성’으로 인식되는 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보았다. 그런데 점점, 울고 싶은 마음은 소리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 왜, 나는 나를 바꾸어야 할까? 왜, 어떤 사람의 친절함은 성실함이 되고, 어떤 사람의 친절함은 젊은 아가씨의 교태가 될까?

그렇게 5년을 보냈다. 그동안 두 번 일터를 바꾸었고, 구성원도 바뀌었다. 나는 점점 웃으며 대답하는 법을 익혔다. 말하자면 나 혼자 진행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요?’ 캠페인.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A씨는 참 친절해, 여성스럽고 보기 좋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스러울까요? 저는 아빠 닮아 친절한 건데.”, “C씨는 참 젊고 화사해. A씨도 친절하지만... 젊은 사

람이 인사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D씨는 다 좋은데 무뚝뚝해서 탈이야. 그래서 아직 싱글인가? A씨가 어떻게 좀 잘 해봐”, “네, 그런데 어떻게 뭘 해보라는 말씀이세요?”

누군가는 이제 ‘사회생활’을 알게 된 거라 말한다. 누군가는 ‘너만 힘든 줄 아냐’고도 한다. 그런데, 그럼 다르게 힘든 사람들도 함께 반문하면 우리의 일터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너만 힘든 줄 아냐’고 말할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힘듦을 이야기하고, 바뀌어나가는 게 건강한 방식 아닐까? 나는 내가 익힌 웃으며 대답하기가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다만 적절하게 숨 쉬며 버틸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다만 나는 여전히 꿈꾼다. 친절한 나도, 정중한 동료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를. 여자라서, 젊은 아가씨라서, 남자를 꼬시려고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친절하다는 것을. 그리하여 내가 나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성실히 30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직장의 모든 동료가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일터에서 오래오래 일하기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 거절하자 부장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팀 언니들에게 가서 애걸복걸기 시작했다. 한약 먹는다든 말을 거짓말이었지만, 약속이 있는 건 사실이였다.

“오늘 퇴근하고 수영복 사러 갈 건데, 같이 골라줄 수 있어?” 내게 그런 제안을 한 건 ○○언니였다. 언니는 남자친구와 주말에 워터파크에 간다고 했다. 졸업 후 처음으로 취직한 이 회사에서 나는 2개월 차 수습이였고 언니는 나와 자리가 멀지 않은 다른 팀에서 일하는 주임이였다. 당시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쯤 달려 출퇴근을 해야 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언니와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다. 폭탄처럼 터진 서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려 시름 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우리 팀 언니들 말고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지냈다. 그런 사무실 안에서 별로 말 섞을 일 없는 다른 팀 언니와 친해진 건 긴 출퇴근을 몇 번 같이 했기 때문이였다. 정시에 퇴근할 날이 많지 않아 저녁 시간은 아주 소중한데. 바쁘게 6시에 퇴근해도 집에 도착해보면 8시가 넘기 일쑤. 하지만 수습 후에 정규 계약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니들에게 밋보이는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 “수영복은 어디서 사요? ○○로 가실 거예요?”, “응. 거기 맛있는 버블티 가게 생겼어. 언니가 사줄게.” 나는 나의 저녁 시간을 보상받고자 타로 버블티에 휘핑크림까지 추

가했는데, 언니는 고민을 한참 하더니 다이어트 중이라며 맑은 아이스 녹차를 시켰다. 녹차나 마실 거면 버블티 카페에 왜 왔느냐고, 내가 경악하며 물었다. “언니 지금도 엄청 날씬한데 왜 다이어트해요?”, “워터파크 가는데, 비키니 입고 남자친구 기 살려줘야 하잖아.”, “굳이? 대리님도 언니 기 살려주려고 다이어트해요?”, “그건 아니지만. 남자랑 여자는 좀 다르지.”, “언니 남친이 배우 이 민호면 인정.” 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언니는 사내 커플이였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영업부의 대리였다. 몇 주 전 직원들 옷차림이 부적절하다며 청바지와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는 내부공문이 내려왔는데, 접대에 동행하기 적절한 옷차림을 원했던 거겠지. 그 대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장 제도를 만들 때 앞장선 사람 중 하나였다. 제 판에는 칭찬이라고 “직원들이 회사의 얼굴인데 청바지는 좀 그렇지.” 따위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었으니 그와 사귀고 있는 언니가 느끼 압박 같은 게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무실의 언니들에게는 비싼 브랜드의 청바지가 아주 많았다. 비싸게 주고 산 청바지를 못 입는 아쉬움과 종일 앉아서 서류 업무만 하는데 도대체 업무에 적절한 옷차림이라는 게 뭐냐는 강력한 반발이 더해져 그 제도는 사흘 만에 유아무야되었다. 그 제도가 사무실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점심시간마다 언니들은 분에 차서 입방아를 찧곤 했다. “○○대리 재수 없어.

○○가 너무 아까워.” 수영복을 고르던 언니는 고민 끝에 가슴이 깊게 파인 흰색 비키니를 골랐다. 그 회사는 면접을 볼 때부터 좀 이상했다. 전 직원 60명 중 50명이 여자라는 사실을 앞세우며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칩까지 튀기며 사장은 자랑했다. 여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도 안 시킨다는 말도 힘주어 강조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열심히 일하면 여자도 승진해서 부장도, 이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랬다. 나와 함께 새로 뽑힌 수습들도, 사수 언니들도 전부 여자였으니까. 하지만 10명이 채 되지 않는 부장과 이사는 전부 남자였다. 여직원 대부분은 20대였고, 남직원 대부분은 4~50대였다. 그래도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언니도 한 명 있었다.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언니가 ‘언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왕언니 같은 사람. 항상 세련된 수트 차림을 한, 냉철하고 멋진 분이었고 결혼해서 어린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다. 당장 내일 나의 정체성이 정직원이 될지, 실업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앞날에 그 과장 언니만이 10년 뒤의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상상해보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런 존재도 늘 쿨하기만 한 건 아니어서 사장실에서 울면서 나올 때도 있었다. 2박 3일 워크숍을 앞둔 날이었는데, 과장님의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다. 과장님은 어렵게 워크숍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사장에게 밝힌 것 같았다. 사장이 몰아세우는 소리가 사장실 밖까지 들려왔다. “네가 애 엄마야? 과장이야? 워크숍에 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든지!” 그 즈음에는 남자 신입사원이 뽑혀

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여자가 많은 기업에 남자가 왔다! 이런 화제가 아니었다. 그의 초봉 수준이 여자 신입 사원들과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데서 온 화제였다. 나를 비롯한 직원 몇이 워크숍 술자리에서 불과하게 취한 이사에게 넌 지시 따져 물었더니, “군대 갔다 왔잖아.” 고작 그 일곱 음절의 답변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언니를 절망시켰다.

그 대단한 워크숍에서 뭘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업무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만은 확실하다. 만 원짜리 커피 쿠폰을 걸고 수건돌리기 같은 걸 했고 그 후엔 계속 작은 방 안에서 과자 같은 걸 나눠 먹으며 동기들과 수다를 떨었다. 아, 그 숙소에 딸린 자그마한 필드에서 골프를 치며 “나이스샷!”을 외치던 부장들과 사장이 창밖으로 보이던 것도 기억난다. 다리에 깁스한 어린 아들을 두고 주말도 반납한 채 억지로 떠난 곳에서 골프를 치는 남자들이나 구경하는 과장 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언니의 마음 같은 것도 상상해보면서. 남자를 위해 커피를 타진 않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여자가기 때문에 요구당하는 업무가 있었다. 추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남자가 아닌 무엇으로서 갖는 부당함을 늘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모멸과 수치. 그 사무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늘 이 두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른다.

정규직 계약을 한 뒤에도 나를 비롯한 동기들 모두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는 1년 만근 날만을 기다렸다.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야지. 아니면 억울해서 어떡해?”라며 다들 이를 악물었다. 퇴직금조차 못 받고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늘 일주일에 두어 명씩 사직서를 쓰거나 해고당했고, 며칠이 지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애들이 또 수습으로 들어와 빈자리를 채웠다. 결국, 나도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썼다. 붙잡으려고 하는 말인지 쫓아내려고 하는 말인지 “너, 여자가 그 나이에 또 취직 할 수 있을 것 같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이의 여자’였던 나는 그때 고작 스물여섯 살이었다. “사회생활은 원래 그래.”, “조직이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지.”, “거기서 좀만 더 버티다 시집이나 가지.”하는 말들 사이에서 내 선택에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다.

정말 세상은 원래 이런가? 개선의 여지도 없이 다 망할 대로 망해버린 것인가? 이런 내 염세적인 마음을 고쳐먹게 한 건 새로운 일터에서 만났던 동료들 덕분이었다. 획기적인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수평적 관계, 동등한 기회, 노동권 보장 같은 것들. 서로가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 서로 다른 감수성을 맞추려는 노력,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 부당한 피해를 본 동료를 보호하고 조직적으로 보상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조직과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아주 평범한 원칙과 누구나 응당 가져야 할 태도. 이런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이전

에는 왜 그렇게 요원했던 건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써가며 논의를 해야 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 문화를 만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이기도 했다. 업무일과 중에 일로써 이 문화를 다 같이 만들어야만 일꾼들이 효능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그 어떤 복지보다도 사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걸 이때 배웠다. 물론 이곳에서도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서로의 이해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상처 입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다 망해버렸다고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직이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논의 후에는 작더라도 이전과 같지 않은 것들을 발견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일터에서는 조정해나갈 갈등은 있을지언정 성별 따위로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다. 치마를 입으라는 공문도, 접대에 동행하자는 상사도 없었다. 매 순간 모멸과 수치를 겪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조직은, 사회는, 세상은 ‘원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내 판단에 확신이 없던, 그 시절 스물여섯 사회초년생인 나와 같은 누군가가 지금 있다면,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조직의 가치가 나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삶.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목소리와 움직임. 다정한 동료로서, 또 훌륭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사회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한 번도 이런 상황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 혼란을 눈치 챈 후배는 재치 있게 상황을 넘겼고 이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심한 분노 때문이었다. 첫째는, 당연히 그 차장에 대한 것이었다. 잘못된 것도 모자라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무엇보다, 아끼는 후배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나서 밤까지 잠을 못 잤다. 둘째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분노였다. 후배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바보처럼 당황하기만 했다. 이 일에 대해 다시 말을 꺼내는 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망치질이 날아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화이트데이였다. 퇴근길에 보니 후배의 손에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연애했보고 싶었던 후배였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그랬더니 후배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과장님이 주셨어요!”, ‘아... 으레 주시는 것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그런데 후배가 “과장님이 자기랑 만나세요.”하며 웃는 것이 아닌가. 유부남인 과장님이 후배를 따로 불러낸다면 혹시 후배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응? 그게 무슨 의미야?”라고 물었다. “저랑 사귀자고 하셨어요. 쉬는 날 데이트하자고... 그러면서 이거 주셨어요!”

말문이 막혔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과장은 후배의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았다.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후배는 ‘살면서 처음 고백받았는데, 30년 연상’이라며 박장대소했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며 농담도 던졌다. ‘어휴, 속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어하는 모습에 걱정하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가 싶기까지 했다. 그러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차장과 과장을 감찰 부서에 신고할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목살 잡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의로운 척하는 모습일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내 발목을 잡은 것은 ‘과연 이것이 진짜 후배를 위한 방법일까?’라는 자기검열이었다.

이제야 정직원이 되어 좋아했던 후배다. 당연히 가해자가 벌을 받고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공론화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더 힘들 것 같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인 후배였다. 용기 내어 물어보았다.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혹시나 부담을 느끼고 앞으로는 내게도 털어놓지 못할까 봐 망설였지만 더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자 괜찮다는 듯이 후배가 웃으며 말했다.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장님과 과장님은 어차피 감찰 부서 사람들과도 친해요. 딱히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다. 그 웃음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으며, 혼자 웃어넘기는 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었다.

이제야 보였다. 나와 후배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차장도, 과장도, 감찰부서 사람들도. 나와 몇 년을 함께한 좋은 선후배이자 동료들이었다. 또한, 우리 부서 분위기는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후배는 매일 출근하는 그곳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사람들 이면의 추한 모습들과 늘 싸우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유리벽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얼마 후 정기인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후배 홀로 두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잘 할 수 있다는 후배의 호언장담에 믿음이 갔다. 그러나 멀어진 만큼 연락도 뜸해졌고 이내 끊겼다. 각자의 자리를 살아내기 바빴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후배들을 통해 그 후배의 소식을 들었다. 몇 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녀석, 괜찮다더니.’

이 글은 나의 통렬한 반성, 치열한 후회, 그리고 미안함을 전하는 글이다.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을 후배에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만약 웃으며 내게 말해주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니,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내게 말해준다면, 이렇게 말해줄 작정이다. 많이 놀랐겠다고. 마음 힘들지 않았냐고. 용기 내어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 후배의 눈물



“○○씨, 오늘은 치마를 입었네. 다리가 아주 미끈한데, 남자친구는 좋겠어!” 각종 매체들을 통해 성희롱이나 #Metoo 문제들을 대할 때면 나는 몇 년 전 근무했던 회사의 ○○차장이 생각한다. 성희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경우 그것이 성희롱이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 같았다. ○○차장은 우리 부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기피대상 1호였다. 늘 여직원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 민감한 부위를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훑어저라 훑어보곤 했다. 남자인 내가 봐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여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특정 신체에 대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나도 거북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괜히 나섰다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직원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눈치였다. 술이 곁들여지는 회식자리는 여직원들에게 더 곤욕스러운 순간이었다. ○○차장은 부장님이 자리에 없을 때면 항상 “○○씨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마셔보자.”며 여직원들에 술을 따르게 하고 반강제적으로 러브샷을 했다. 2차로 노래방에 가서는 여직원들을 옆자리에 앉혀 귓속말을 하거나 격려를 한다는 명분으로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언제부턴가는 나를 믿고 따르던 여자 후배가 타깃이 되어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다. 입사 때부터 직접 일을 가르쳐주며 친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는 후배였다. ○○차장에게 연이어 모욕적인 성추행 발언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내게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후배에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부서에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직장 상사와 부딪혀 봤자 후배만 손해였기 때문이었다.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끼는 후배이기는 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차장의 성희롱 발언 수위가 너무 높다 싶을 때 나서서 “차장님, 왜 이러십니까~ 말씀이 좀 썩 것 같네요. 하하하~”라며 둘 사이를 떨어뜨려놓는 것 밖에는 없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다른 회사에서 그렇듯 우리 회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듯했다.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빠져있기 일쑤였다.

그러던 와중에 매월 말에 열리는 회식 자리에서 결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차장이 후배의 등을 두드리다가 후배의 윗 속옷이 풀려버린 것이었다. 당황한 후배는 양 팔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그대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차장은 탄정만 피우며 모른 척 했다. 여자 동

료들이 급하게 후배를 데리고 나갔고, 회식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차장은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뭘 그렇게 난리법석이냐며 바로 회식 자리를 빠져나갔다. 다음날 후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튿날 출근한 후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후배는 고민이 많았다. 인사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전자를 택하고 싶지만, 직장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시선을 받을까 봐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던 것이다. 후배는 성희롱에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퇴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나 역시 후배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졸였다. 나를 멘토라고 생각해 믿고 따르는 후배가 성희롱을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더는 이 상황을 못 본 척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단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동기와 후배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십여 명의 남녀 직원들이 모여 ○○차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 결과 ○○차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 직원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일단 ○○차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부장님께 알려,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부장님은 평소 ○○차장이 선을 넘나드는 발언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묵인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회식 자

리에서 여직원의 속옷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다. 다만 부장님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동료이기에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고심 끝에 부장님은 부서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차장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와 직원들은 사례들을 모아 PPT자료를 만들었고, 전 부서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료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나는 지금까지 여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사례들을 소개한 후 “자신이 무심코 건네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여동생이나 부인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라는 말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마무리했다. PPT자료 속에 등장하는 성희롱 상사가 자신이라는 것을 눈치 챈 ○○차장은 그 자리를 황급히 떴다. 며칠 후 부장님께서는 전 직원을 모이라 했고, ○○차장은 전 직원 앞에서 그간 자신이 해왔던 행동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차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여직원들은 다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퇴사까지 고민했던 후배 역시도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격려와 관심으로 포장된 직

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누군가는 어렵게 들어온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는 않았는지, 주변에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료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 ‘혼자’가 아닌 ‘우리’일 때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그 부당함에 대해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가 위축되고, 모순적이게도 가해자보다 더 비난받는 일들이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부당한 처우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그런 사건들을 봐오면서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함에도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뒀어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이다.

사람의 일이라는 건 아주 복잡해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피해자가 ‘혼자’서 문제를 꺼안는다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대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회사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피해자 혼자 이 문제를 꺼안는 건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문제를 묵인하고 흘려보내고,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이 성희롱인지 인지조차 못 하고 넘어간다면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결에서 지지해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건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차별로 인해 힘들었다. 권위적인 선생님 아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

니었다는 걸 잘 알았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어 혼자서 감정 소모를 많이 했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내 의견을 표현하고 차별에 대해 맞섰었다.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무렵 롤링 페이퍼에 반 친구들은 차별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의견을 계속해서 표현했던 게 멋있었다고 적어주었다. 예상도 못 했던 말들이라 조금 놀랐지만 나 혼자서만 이 힘든 걸 견뎌냈던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었다.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작은 위로와 부당함에 맞서려는 의지를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면, 기꺼이 용기를 내서 내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진술도 해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위압적인 사내 분위기라면 뒤에서라도 지지해 줄 것이다.

내가 다닐 회사는 내가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면 좋겠다. 성별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대부분 직원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꿈꾸는 또 다른 것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보는 시선을 가진 회사다. 그래야만 본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일

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내가 남자라서 그런가?’와 같은 자신이 가진 성별에 대한 작은 의심조차 들지 않는,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회사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고민은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나감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애초에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장 내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완벽하게 성평등한 직장은 아직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고쳐나가려고 여러 사람이 힘쓰면 멀지 않은 날에 내가 바라는 성평등한 직장을 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사람이 혼자서 앓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서로 연대하며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며칠 전, 팀장님은 기분이 좋은지 직원들 가까이와 칭찬을 건넸다. “오늘 저녁에 어디 가? 나이트 가면 조명 잘 받는 옷이네.” 본인으로선 칭찬과도 같은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을 돌려 앉았다. 초반엔 그런 말에 농담을 얹어 표현도 해보고, 정색하고 불쾌하다는 내색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져 갔다. 더 높고 두꺼운 벽을 팀장님 앞으로 세워두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린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팀장님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가 있었다.

오랜만에 회사를 찾아온 손님이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팀장님은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기 위해 말을 꺼냈다. “2층 사무실 가봤어? 우리 층도 자주 와. 우리가 물이 더 좋아. 봐, 예쁘잖아.”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는 모두 얼굴이 발갱게 달아올랐다. 등을 돌려 앉을 의자도 없이 정면으로 마주 앉아 굳어가는 표정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더 당황스러웠다. 그릇에 머리를 박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고무 같은 밥알을 씹으며 시간이 흐르기만 바랐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있었다. 회사 내부에 마련된 부서에 신고 해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무책임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여태 우리끼리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한 번쯤은 머리를 맞대어 씩씩하게 헤쳐가고 싶

었다. 이 기회로 관계에서도 기초를 다져보면 어떨까.

### ‘현명하게 칭찬하기’

사무실로 돌아가 우리는 분주하게 준비했다. 우리가 찾은 마지막 방법이었다. 빼곡하게 월별 일정을 써 놓은 보드 위에 ‘현명하게 칭찬하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팀장님과 오늘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얼굴을 보듯 말간 눈으로 글자를 보는 팀장님을 보며 언젠가 반가운 목소리로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복한 장면을 떠올려봤다. 우리가 쌓아 올린 벽을 무너뜨릴 순 있을까. “팀장님, 이제부터 매일 퇴근 전까지 한 명 정해서 칭찬하는 거 해봐요.”, “현명한 칭찬은 어떤 건데.”, “외적인 것 말고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내면에 있는 걸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죠. 현명하지 않은 칭찬을 했을 땐 커피 사는 거예요! 약속!”, “그래. 약속할게. 해보자!”

동료들과 지내는 일이 즐거우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열두 명과 한 사람은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았고, 단 한 사람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 말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다. 다른 부서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직원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는 얼굴을 볼 때, 문득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단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에 비하면 나는 투명 인간을

만들기 위해 보이는 존재를 애써 눈감고 지냈었으니까. 팀장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게 없힌 것처럼 마음 안에서 큰 돌덩이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날부터 팀장님과 우리는 현명한 칭찬 덕에 어떻게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하며 단답형으로 대답 정도 하는 것 말고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부터 이미 큰 변화가 찾아온 셈이다. 업무보다 더 고된 일처럼 머리를 굽적이며 이런 표현에 익숙지 않아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팀장님에게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피부가 참 뽀얗고. 백조처럼 다리가 길고...”, “땡! 외적인 거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아까 전화 받을 때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지혜롭더라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님과 우리 사이에 찌를 듯이 높았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팀장님도 자꾸 멀어지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서로 어긋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 같다며 언제든 현명한 표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은 짚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일찍 출근했네?”, “회의가 하나 있어서요.”, “역시! 땃속부터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야.”, “오늘 칭찬 주인공은 저예요?” 묵직한 회의 서류를 품 안에 들고 나가며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현명하게 칭찬하기’를 바라보았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며

환하게 웃어주는 팀장님의 얼굴과 글자를 번갈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 열세 명의 자리가 하나의 빛으로 모여 반짝 빛나고 있었다.

## 우리는 성별 외에도 많은 것이 다르다

박 다 혜



나는 이런 적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대응 매뉴얼은 있으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란 어려운 사회고, 유연한 대처법을 알려 줄 선배는 없었다. 버티지 못했거나 버티기 싫었다. 달걀과 닭 중 무엇이 먼저일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란, 사회를 조성하는 개인의 관념을 바꾸는 일.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처우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목소리를 키우기보단 마음을 고르는 법을 먼저 익혔다. 때문에 우리는 줄곧 승전보가 아닌 푸념을 들었다.

사내에서, 특히 상대가 상급자일 경우, 불쾌감을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첫 직장, 첫 회식. 2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나와 동료들은 기혼자인 팀장이 미혼 과장에게 입 맞추는 광경을 목격했다. 과장은 거부감을 표현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본인이 선곡하겠다고며 앞으로 나섰다. 순식간이었고, 우리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술이 과했다는 것은 와전이다. 모든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와 같은 기숙사에 살던 그 과장은, 그날 새벽 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너무 힘들다.”고 했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한때는 팀장의 몸쓸 행동보다, 과장의 유연한 대처에 주목했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고 재치 있게 넘어간 것이 멋있었다 생각했다.

얼마 후, 나는 타지로 이직했다. 경력은 있지만, 말단사원으로 입사한 난, 젊은 부장의 외모 평가와 음담패설을 견디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 견디지 못하는 건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장의 농담은 더 노골적이었고, 내 자리를 지날 때마다 격려 차원의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워졌다. 정작 나는 자연스럽지 못했다. 과거의 그 과장처럼 웃으며 상황을 넘기지도, 불쾌함을 확실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몹시 분했고, 과거 미혼 과장의 행동을 동경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권고된 행동강령과 같이 불쾌함이나 거부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나는 명확하게 거부감을 표현하되, 분위기는 깨지 않고, 상대는 겸연쩍기를 바랐다.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 달라 바로 표현했고, 내 물건이나 몸에 타인이 손 대는 것에 예민하다며 부탁드린다고 웃으며 부연했다. 그 뒤 부장과는 잠시 꺾끄러웠지만 오래 가지 않았고, 신체접촉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사라졌다.

진짜 멋있는 것은 사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닌, 웃으면서 내 할 말은 하는 것이었다.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는 것은 하수다. 만약 내게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움츠러들지 않고 거부 의사는 분명히, 마무리는 웃으며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능글맞게 어수룩한 표정으로 팀장에게 두 분 부부셨냐고 여쭙볼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은 팀장이 감수해야 할 몫이

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상급자의 조직 내 보복이 두려워서다. 불합리한 처사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앞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먼저 본인의 탓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가 돼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더욱 의연하게 행동하자. 주눅 들면 본인만 손해다. 잘못 한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속한 직군은 성비가 치우쳐 있다. 때문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으로 평가받기 전에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아무래도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일찍 퇴근하려고 할 것이다,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추측은 빗나갔다. 나의 투상 능력은 뛰어났고, 나는 일을 두고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며, 정년까지 일할 계획인 사람이다. 남자는 서류작성이 꼼꼼하지 못하고, 군소리 없이 야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여자는 야근을 싫어하고, 결혼하면 퇴사할 것이라는 생각.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생각’이 있다. 우리는 사실과 생각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둘은 구분되어야 하며, ‘생각’은 확인된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남자 경리’, ‘여자 용접사’ 성별로 성향과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회계지식이 많은 흥부 씨’, ‘끈기 있는 콩쥐 씨’ 개인의 성향과 능력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별 외에도 많은 것이 다르다.

여기까지, 그대는 저자의 성별을 단정 짓지는 않았는가. 나의 성별은 남자이거나 여자다. 과연 그대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의 능력에는 눈을 가리고 판단한 적 없는가. 불합리함을 느끼는 독자 스스로가 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대변하면서도, 스스로 성별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남자는~’, ‘여자는~’보다 ‘아무개 씨는~’이 기준이 되는 사회. 남자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여자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는 모두 다르다.